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人兼編輯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英國의 對極東策

一

이는 理想主義外交의 淸算으로 英國의 外交政策은 一大轉換을 보여 獨逸의 再軍備宣言 伊에의 紛爭以來 어지럽게된 歐洲의 平和機構再建을 爲하야 多角的外交陣을 베풀고잇는것은 最近에 報道되고잇는 幾多의 國際會談으로 이를 알수잇거니와 그 第一次成功으로나타난 英伊協定의 成立으로 爲先地中海의 風浪이 鎭靜하게되자 英佛伊三國關係는 적어도 圓滑하든 昔日을 回復할수잇슬것으로보아 그後에올 英國의 對極東策이 가장 警戒를 要할바이라하야 或은 獨伊樞軸의 變調를 云云하는側、或은英國의 極東牽制를爲한 積極進出을 云云하는側等等 幾多의 臆測이 盛行하엿는데、最近의 上海海關接收問題解決等의 事實을 보면 英國의 對極東策도 現實에 立脚한 新方向으로 轉換하고잇는듯한 點도不無하다고 할수잇슬가한다。

二

上海海關을 中支維新政府에서 接收하게되엇다는것은 外債償還團匪賠償金支拂問題에關하야 臨時、維新、漢口政府의 分擔支拂率을 算出決定하야 그配定額을 支拂하게된結果、그海關收入에서 그配定額을 控除한 殘部가 維新政府의 收入으로 收得할수잇게되어 그財政的基礎가 一層鞏固하게된것을 意味함은勿論이나 이것을 다른角度로보면 英國은 維新政府를 承認한것이나 다름업는것이다。이問題에 關하야 支那紙가 一齊히 英國을 攻擊한것으로보드라도 何必 海關收入을 喪失한것만을 論議하는것이 아닐줄을알수잇슬것이다。勿論 英國의着眼點은 支那에對하야 가지고잇는 巨大한 權益을 如何히 擁護할것인가하는데 對하야 가장 焦慮하고잇는터라 海關問題도 그權益에 損失을 입지안흘 程度에서 現實에立脚한 某程度의 讓步를 示한것으로 볼수도 잇스나 如何튼 이하나로 英國의 極東策의 全部를 示唆한것이라고 보아도 조흘것이아닐가?

三

勿論 表面으로 이러한 態度를 보이는 英國도 裏面으로는 執拗한 對支援助를 繼續하고잇는것도 事實이므로 老猾한 英國의 策謀를 簡單히 論評할수는업슬것이다。最近에 傳하는 英政府의 日支紛爭調停說도 그可能性與否는 姑捨하고라도 될수만잇고 機會만잇스면 對日牽制를 畫策하려는 魂膽일것이다。臨時、維新兩政府의 基礎가 날로 든든해가고 將政權을 相對로하지안는 現階段에잇서서 『日本의 體面을 損傷치안코 支那와의共存을 希望한다』는것을 中心的條件으로한 和平斡旋이 成立될까닭도 업는터이나 英國의出馬가 事實이라하면 英國이 從來의 親蔣主義로부터 積極態度로 轉向한것을 意味하는것이므로 이것만은 極히 警戒를要할바이라할것이다。

四

그러나 英國의 對支援助와 極東에對한 執着이 決코 蔣政權에 잇는것이 아니오 結局 그權益에미칠影響、換言하면 그利害關係로因한것이니 그權益만 確保할수잇다면 支那를 어느政權이 支配하든 그것에 介意할바 아닐것이며、設或 多少의 影響이 미친다하드라도 旣成事實을 [illegible] 主張이나 擴張가 成立 [illegible] 國外交가 小乘的見地로부터 大局에 對해서도 亦是 英伊協定의 成立以上 極東에잇서서와 同樣으로 一定한 交涉을 制定하고 實質的으로 [illegible] 擾亂을 敢하야 그權益의 損失을 最少限度에 그치게 努力하지 안흘수업슬것이어다。이러한 點으로 생각하면 英國의 政策에는 相當한 警戒를 不忘하여야할것이나 決코 昔日과가튼 干涉的態度로 나오는일은 거의 잇슬수업슬것으로 보아 今後英國의 極東策의 變化는 크게 注目을 要할바라할것이다。

佐藤部隊阜寧猛進
朴洛附近敵軍潰滅
航空隊敵大部隊擊破

【○○에서三日松岡藤波同盟特派員發】江蘇省東北部의 鹽城을 陷落시킨 佐藤部隊는 三日午前 同地北方 四十키로의 溝安墩을 占領하고 一部는 北部要衝阜寧으로 猛進中이다 溝安墩은 阜寧의 東南十二키로에잇서 同地의 咽喉를 扼하야 이때문에 阜寧의 死命을 全혀 制하게되엿다

【北京三日發同盟】我○○部隊는 一日夕刻 韓莊東方 一○키로의 朴洛附近에서 約四千의 殘敵을攻擊하야 敵에게 殲滅的打擊을주어 이를南方으로 潰滅케한바 이戰鬪에잇서서 敵의 遺棄死體는 六百五十에 達하나 我軍의 損害는 輕微하다

【北京三日發同盟】我○○飛行部隊는 隴海線을 北上中의 敵을 粉碎하려고 一日午前七時三十分 出動 郯城附近을 移動하는 敵大部隊에게 爆擊을 加하야 多大한 損害를주엇다 또 我○○部隊는 三十日午前八時 南陽鎭(濟寧南方二十五키로)東北約十키로의 南陽湖岸에 敵三千을 태우고 待機中의 船約百五十隻을 爆擊 이에殲滅的 打擊을주엇다

錢塘江을渡河하야 遊擊隊掃蕩을開始

【上海三日發同盟】錢塘江南岸地區에 蟠居한 敵遊擊部隊는 劉建緖指揮下에 三月末以來 我軍警備間隙을 노리고 小舟로 同江을건너 杭州灣岸乍浦鎭、金山衛方面에 侵入하야 夢想과가튼後方攪亂을 試하고 이를誇大히宣傳함으로써 支那民衆及第三國을 欺瞞하엿스나 皇軍은마친내 이方面의 敵遊擊隊에 徹底的으로 打擊을 하기로되여○○方面에서 待機하고잇는 我○○部隊의 精銳는 三日早曉富陽、林家橋杭州 各方面으로부터 錢塘江을 渡江하야 同江南岸紹興、寧波方面에 對한掃蕩作戰을 開始하엿다 紹興方面은 從來부터 浙江財閥의 本據로 戰後에는 杭州、湖州、嘉興方面의 富豪들도 모두 이方面으로 逃避하엿기때문에 顯著히 阻害되엿스나 今後의 討伐로 同方面의 人心도 顯著히 明朗化하고 經濟活動도 活潑하게되리라고 觀測된다

皇后陛下
御名代宮御差遣
戰傷將兵御慰問

【東京電話同盟】御仁慈기프시옵신皇后陛下께옵서는 今回事變에 잇서戰傷한 將兵의 身上에 기피御心을 베프옵시사 前부터各皇族妃殿下를 全國各地에 御差遣하옵시사、白衣의 將兵等을御慰問케하옵시엿는데 三日午前九時二十分御名代宮으로 久邇宮朝融王妃知子女王殿下를 牛込陸軍軍醫學校에 御差遣 同校에入院中인全戰線各部隊 戰傷兵特殊患者를親히 御慰問하옵시고 入院將兵에對하야 御下賜品(金一封)을 賜하옵시엿는데 悼悚하옵신 軫念에 一同은 恐懼感激하엿다

第二인터所屬各國
蘇聯과提携를拒絶

【東京電話同盟】二日某方面에達한 情報에依하면 蘇聯勞働組合은 最近第二인터내슈낼系 勞働組合에對하야 提携件을 提議하엿든바 第二인터所屬各國은 諾威及西班牙의 人民戰線派를 除한外 모두이를拒絶해왓다 來十七日부터 二十二日오슬로에서開催될 第二回인터내슈낼組合會議에서는 右決議를 最後的으로決定하게될模樣이다 右는 一日의 『메이데이』날 콤인테른書記長데미트로프氏가 콤인테른綱領으로 日獨伊三國의 國際的孤立化와 各國에잇서서의 勞働主張의 統一化를 發表한 事實을 全혀 背反한것으로 過般來 스탈린氏의 鎖國主義에 依하야 政府部內의 國民主義者로 말미아마 顯著히 退潮에當面하여잇는 콤인테른이 勢力回復을 謀하려

日支兩國政府首班 歷史的會談遂行
兩國締盟의礎石完成

【東京電話同盟】東亞安定、日支兩國提携의 重大使命을 帶하고 來朝한 中華民國 臨時政府 行政委員長 王克敏氏는 三日午後三時四十分 首相官邸를 訪問하고二階廣間에서 近衛首相과 會見 日支兩國의 運命을 雙肩에 負荷한 兩國政府의 首班者는 玆에歷史的 會談을 遂하게되엿다 이에압서 近衛首相은 當日若干의感氣氣味가 잇섯스므로 王氏와의會見에 支障이업도록 定例閣議에도 出席치안코 荻窪別邸에서 英氣를 養하다가 午後三時에이르러 緊張한 낫으로 官邸에 나타나 先着한 杉山陸相과約三十分間 會談하고 王委員長과의 會見에압서 重要協議를 遂한바이섯다 그리하야 王委員長은 邵秘書、吉野陸軍中佐、淸水通譯官을 近衛首相은 風見書記官長、岸秘書官을各其同伴하고 四時卅分까지 五十分에亘하야 東亞安定의根本方針日支提携及 將政權의 抗日容共策의 徹底的排擊 經濟再興方針等에 對하야 胸襟을 打開하고 兩者의 意見을 交換하야 玆에 兩國締盟의 鞏固한礎石이 構築되게되엿다 (寫眞 上 近衛首相 下王克敏氏)

會談內容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과 王克敏氏와의 歷史的會談 內容은 左와如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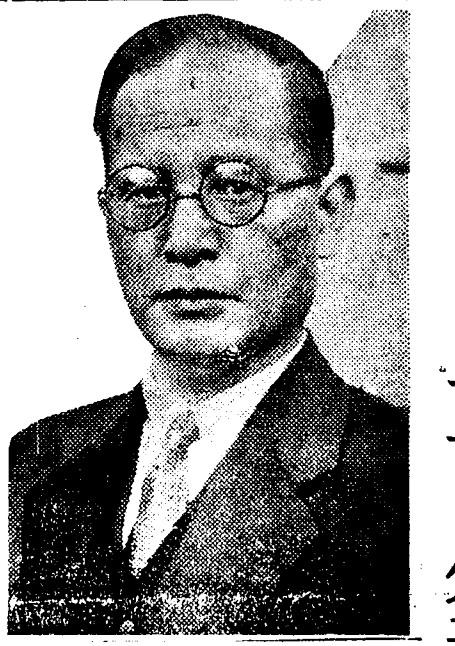
王委員長 東亞平和保持를 爲하야 日支兩國의 提携가必要하야 臨時政府는 其成立 以來 貴國의 駐支當局과도 密接한連繫를 取하야 政治、經濟、治安 確立에 努力하고 잇는데 此際 貴國政府로부터 敎授를 賜하면 欣幸으로 여이겟다

近衛首相 我國으로서는 最初熱心히 南京政府의 反省을求하고 抗日容共政策의 抛棄로 兩國間의 眞正한 提携를 實現하기를 希望하야 마지안헛스나 國民黨政府의 要人、大官은 秋毫라도 反省한 비치업고마친내 一月中旬 我國으로서는 現在의 方針을 決定치 안흘수업섯든것이다 卽軍事的 其他모든 手段에 依하야 國民黨政府를 徹底的으로 潰滅시킬것 따라國民政府와는 斷然 平和를 議치 안켓다는 구든 決心을 하게 되엿는데 我帝國으로서는 日本과 함께 提携하야 赤化를 排擊하는 政權의 成立을 期待하고 이와 힘을 合하야 東亞平和를 確立함에 邁進하려한다 蔣政權의間에 和平을 交涉하려함과如한것은 帝國은 斷然이 업슬수업다 一月中旬에決定한 大方針은 確乎不動한것인바 王先生을中心으로한 新政權과 어디까지 緊密한連繫를 取하야 事變의 解決에 當할생각이다

王委員長 我等은 新政權을鞏固케할수잇도록 微力을 竭하야 이에 期待에副할수잇도록 義達시킨다 그러나 左의諸點만은 明白히 말할수잇다 卽 我等은 容共抗日의 政策을 斷乎히 排擊한다 이는 余와 余의 同志의 年來의 主張이다 今後에도 이 方針은 變함이 업다 只今 總理大臣閣下로부터 말슴을 듯고 貴國의 方針도 잘 諒解하엿다 余도 東洋平和確立에 當하야一層努力할생각이다

近衛首相 말슴을 듯고 크게 安心한다 只今말하엿거니와 蔣政權의 潰滅을 期함은 帝國의 根本方針이나 그러나 我國은 事態가 漸次 展開되어 貴國의 國家人民이 不幸한 狀態가 永續되지안키를 切望하야 마지아는다

對支援助에對하야 蘇聯에再次抗議
三日外務省當局談發表



【東京電話同盟】蘇聯邦의對支武器及人的援助는 最近一層露骨化하야 支那軍 飛行隊는 거이蘇聯製 飛行機及 蘇聯軍人에依하야 組織된 現狀인데 帝國政府는 三月二十八日 廣田外相의 스타비치 蘇聯大使에 對한 抗議를비롯하야 再三嚴重抗議를하여슴에도不拘하고 蘇聯側은 何等反省하는비츨 보이지안흠으로 아니라 도리혀 我軍에 [illegible] 마치 敵國과如한 [illegible] 는 現狀임으로 外務省에서는 玆에거듭抗議를 發하는同時에 三日午後二時左와如한 當局談을 發表하엿다

(外務省當局談) 蘇聯邦이 昨年十月頃부터 今年四月半頃까지 支那에 輸送한 爆擊機等 總數는 約五百機에達하고 蘇聯人飛行士 機關士는約二百에 達하는것으로 推測된다 이는 이一五型、이一六型驅逐機 S・B爆擊機等 그리고 右飛行機의 大部分은 我皇軍兵力에 依하야 擊墜又는擊破되엿슴으로現存者는 겨우 二百機 內外인데 이一例로 明白한바와 가티 蘇聯의 支那에對한武器、軍人의 供給은 今後에도 根絶되리라고 看做된다 去一月二十六日 南京을 空襲하다가我軍에게 擊墜된 飛行機의 搭乘者二名(擊死)이 蘇聯人이엿든것 또三月十四日蕪湖에飛來하엿다가 亦是 我軍에게 擊墜된 飛行機가 S・D爆擊機이오 그搭乘者가 我軍에게 捕虜되엿는데 本人의陳述에依하면 레닌그라드航空隊 附航空兵中尉이엿다는等 蘇聯의 對支援助에關한 確證을 엇게된것은 旣報한바와갓다 廣田外相은 지난 三月廿八日 在京蘇聯大使와 會談、此際 嚴重히蘇聯側의 注意를 喚起하는同時에 在蘇 重光大使로하여금 蘇聯政府에 嚴重抗議케하엿다 重光大使는 四月四日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과 面會하고 前記한바와如한 蘇聯의 對支援助의確證과 事實을詳細說示한後 如斯한 對支援助는 蘇聯의實情과 制度에鑑하야 政府의 直接指揮下에 支那와 通하야 我方에對하야 行하는 蘇聯自體의 敵對行爲라고 認定하지 안흘수업다 如斯히 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生할수잇는事態에 對하야는 蘇聯邦政府에서 一切의責任을 負하지안흐면안될것이라고申出하엿다 이抗議에對하야 리트비노프氏는 支那에 武器를 賣出하는것은 蘇聯만이 아니다 蘇聯은 軍隊又는 個個의 軍人에對하야 戰鬪行爲에 參加시킬目的으로 支那에 보내지는안는다 前記飛行士의 陳述은 信憑하기에 足하지못하다 支那軍中에는 種種外國의 義勇兵이 잇슴에도 不拘하고 日本은 이에對하야 何等苦衷을 말치안는다 重光大使는 支那에잇서서 事態는 [illegible] 업시 잡엇기지만 이重大한 事態에 蘇聯邦의 現役軍人이 政府의 命令에依하야 支那에赴하고 在支日本軍에 對하야 敵對行爲를 함에對하야 日本政府는 本日과如한 嚴重한 申入을 함은 當然한 일이고 蘇聯의 制度에依하면 義勇兵과가튼것은 잇슬수업다 모두 政府命令에 依하야 飛行機와 飛行士가 外國으로 가는것으로 現役軍人이 政府의 命令으로 支那에 赴하야 [illegible]

其後 蘇聯邦의 對支援助에 對하야 四月十一日 井上歐亞局長으로부터 在京蘇聯大使館參事官에 對하야 蘇聯飛行機及 飛行士가 支那軍中에잇서서 我軍에 對하야 敵對行爲를 繼續하는事實은 日本國民의 到底히 看過할수업는 重大問題라고 指摘하고 거듭 蘇聯邦政府의 反省을 促하엿다 今回 支那事變이 惹起된 以來 蘇聯邦은 物質的、精神的으로 支那에 同情하고 또는 我國에 對하야 敵對的輿論을 喚起하는데對하야 我國民은 모두 重大한 關心을 가지는者이다 吾人은 蘇聯邦側이 東亞에 處한 地位를 正解하고 그對支態度를改正하기를 要望한다 (寫眞은 重光大使)

英佛關係에對한 獨伊의對策協議
兩首相會談의主題

【伯林三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三日夜羅馬에 到着、뭇솔리니首相과 會見하고 新國際情勢에 對하야 意見의交換을 遂하기로되엿는바 히틀러總統과 뭇솔리니首相의會談의主題에 關하야 AP通信社伯林支局에서는消息通의 觀測이라하야 左의諸問題를列擧하고잇다

一、最近의 英佛關係强化에 對한 對策의協議

一、히틀러總統은 國防軍首腦의 專門家中에서 [illegible] 帶同한 事實로보아 獨伊兩國間의 或種의 協定締結交涉을 行하지나 안는가 하는 觀測이 强하다

一、西班牙、西班牙프랑코政權을 包含한 獨伊軍事同盟說도 行하고잇다

一、체코슬로바키아의 獨逸少數民族問題에 對하야는 히틀러總統은 民族自決權을 [illegible] 要求할것이 [illegible]

獨伊主力艦建造

【華盛頓三日發同盟】最近華盛頓에서는 米國海軍이 入手한 秘密情報에依하야 外國의建艦情報가 [illegible] 센세이슌한 報道가傳하고잇는바 UP華盛頓支局은 二日獨伊의 快速主力艦建造說을左와如히 報道하고잇다 米國海軍에 入手한情報에依하면 獨伊兩國은 目下建造中인 主力艦二隻은 적어도 三十節의速力을 가지게될豫定으로 이는 快速主力艦에 比하야 米國海軍이 現在가지고잇는 最速主力艦은 [illegible] 그런데米國海軍이 現在所有한快速巡洋艦은 三十二節이다 [illegible] 主力艦은 二十一節에 不過하므로 [illegible]

銃後熱誠에感謝
長谷川中將聲明發表

【長崎電話同盟】二日午後七時半長崎港에凱旋한 長谷川中將은銃後의熱誠에感謝하는 左와如한스테이트멘트를 記者團에 手交하엿다

余는今般 上命에依하야 歸還한것으로 卽時東上參內할豫定이다 또任務報告를 마치지못하엿스므로 任務에對하야는 아무것도말할수업스나 아시는바와가티 皇軍이向하는곳에 敵이업고 皇威를八紘에빗내 感激에堪치못하는바이다 現地에잇서서 기피感銘한것은銃後國民의熱誠잇는 後援이엇다 前線에잇는將兵은銃後의熱誠에感激하야 業積가크게振作되는바잇섯다 그를키는듯한 銃後國民의 熱誠잇는後援은 我國民忠君愛國의 至上의 發露로서我皇軍獨特의 美風으로 安心되는바이다 事變勃發以來幾多의 男士들 戰陣에서戰死하고 또는廢傷의人이되게하며 或은주주것 病床에呻吟하는者 相當히잇서 참으로 愛惜同情의念을 不堪하는바로 上 大元帥陛下께對하야 恐懼不堪하는바이다 同時에 遺族家族들에게 對하야서도 기피 同情을 表하는바이다 이들 勇士의 英靈을 永久히 平安케하며 傷病者의勞苦를 意義잇게함에는 我等軍人을 爲始하야 國民擧皆가益益 協力一致 今次事變의 大目的達成에 邁進하는外에는他途가업다고밋는다玆에 全國여러분의 熱誠잇는銃後援을 기感하고 謝하는바이다

上海海關問題
兩方間圓滿解決

【東京電話同盟】上海海關問題는 旣報와如히 堀內外務次官으로부터 英國側에 對하야 帝國政府의 措置案을 通報한대 對하야 二日 크레기―大使를 通하야 日本側의 措置案에 全혀 異議가 업다는 本國政府의 回答이 잇섯스므로 玆에 同問題는 圓滿解決을 告하엿다 따라서 外務省은 三日正午 『支那海關問題에 關한 帝國政府의 發表』라 題하고 右措置의 經過及 內容을左와如히 發表하엿다

支那海關問題에關한 帝國政府의發表

支那關稅收入을 擔保로하는 外債의 償還其他關係事項에 關하야 去二月以來 在京英國大使크레기―氏及 堀內外務次官과의間에非公式會談이잇섯다 右意見交換의 結果帝國政府는英國政府에 對하야 今次事變繼續中 帝國政府가 此等問題處理를 爲하야 取하려고 하는 暫行措置를 通報한데 對하야 英國政府에서도 同政府에 關한限事變中 右暫行措置를 適用하는데 異議가업는 旨의回答을 接하엿다 前記措置는事變中에 限한暫行的의것으로도 諸般의 經濟狀況及 今後의重大問題에 對하야 다시 遂行하기로되여잇는것인바 右에依하면 日本의占領地區內 各港의海關이 接收한 一切의稅收는 橫濱正金銀行에 貯入케될것이며 右貯入된 稅收는 關稅擔保外債及賠償金 償還等을하기爲하야 外債負擔部分을 總稅務司에게 送金하기로 되엿다 右外債及賠償金 償還은 從來와가티 海關經費其他定例의支出을 差引한稅收에對한第一擔保가될것이오 또各海關의外債負擔部分은 各海關稅收의 全支收入에 對한 比例에依하야 每月算定될것이며 本件措置는 다시 客年九月以來 延滯銀行에供託되여잇는 對日團匪賠償金의大宗은 이를日本政府에交付키로하는同時에 將來團匪賠償金 日本受取分及 一九一三年前後의 借款에關하야는 日本軍은 今後諸外國에對한 同様의 支拂를實施하기로되엿다 日本軍隊占領의 各海關과 匯豊銀行에의 預金으로今年 一月以降 上海稅關의 外債支拂分으로서 總稅務司에서 借越한 金額을差引하고 殘額은 全部橫濱正金銀行에 引渡케될것으로 右引渡를受한 預金은將來外債償還에利用하기로되엿다

吏制改革에對해
各閣僚革新意見表明

【東京電話同盟】近衛內閣이 標榜하는 革新政策의 第一步로實現을 期待하고잇는 文官制度改正案은 法制局에서 立案한것과 當初의 原案과의 間에 相當한 懸隔이잇서 三日閣議에서도 種種論議되엿는데 首相을 爲始하야 海相 法相等의 出席이업기 때문에 最後的決定을짓지못하고 原案을 다시 後日에미루기로되엿다 그리고 其席上에서 賀屋藏相 中島鐵相等으로부터 文官制度改革問題를 中心으로 左와如한 意見이 開陳되여 자못注目을 惹起하엿다

一、現在 各省의 事務는 官制에 捕捉되여 所謂繁文辱禮에 墮하엿스므로 官吏制度改善에當하여는 이問題를 아울러 考慮할것이다

一、現行制度에 依하면 有能한判任官이라할지라도 奏任官에로의 門戶는 거이 閉塞되여잇스므로 人材登用의 本旨에鑑하야 奏任官으로의 昇進할方途를 擴大할것이다

一、財政産業統制의 合理化에伴하야 官吏의 經濟部門指導役割은 極히 重要하게되여왓스므로 民間의有力者를 自由로任用할수잇도록 勅任官任用範圍를 擴大할必要가잇다

一、爲先 官吏制度를 改善하기 보담 차라리 此際根本的行政機構改革을 緊急立案實現할것이다

一、制度改正보담 肝要한것은官吏事務의 能率增進인데 各省에서 事務의進捗成績表를 作成하야 이를閣議에 報告하는方法을 考究할必要가잇다

本社參觀

大東商業學校生徒二○○名 金鳴鎭氏引率下 本社見學

人事・集會

▲水橋武比吉氏(光州稅務監督局稅務部長)新任人事次來社

▲高橋英夫氏(京城稅務監督局經理部長)同上

夕刊後市況 三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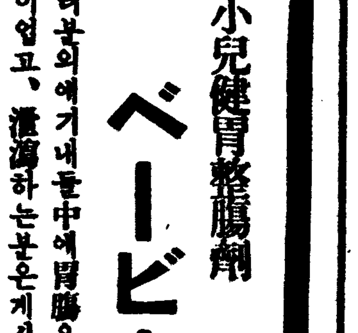
◆各地期米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	三三・三	三三・三六
釜山	—	—	三三・三五
群山	三二・六○	三二・六三	三三・三七

◆各地商品後引◆

	當限	先限
木浦	三一・五五 三三・一七	三三・二九
下關	—	三四・二八
名古	—	三四・八九
大阪綿花	—	五五・五四
大阪人絹	一六・三○	一七・三○
福井人絹	一六・三○	一七・三○
橫濱生糸	六六○	六九○

당신의 어린이들의 胃위腸장藥약 베―비―散



小兒健胃整腸劑 ベービー散

어러분의 애기네들中에 胃腸을傷하야 食慾이업고、泄瀉하는분은 게시지안습니까。

貴下는 애기네의 胃腸藥 ベービー散을아로시는지요? ベービー散은 애기네를 에게만 使用하는 胃腸藥으로서 今回에 發賣한 最新藥이오。말은 多小專門的이되나 安心하시고 애기에게 服用시키기爲하야 本劑의 內容을 公開하겟습니다。

ガ ル コ ン……タンニン酸ゼラチン과 ベンツオナフトール라는 二種藥이 化學的으로 結合한 藥인바 タンニン酸ゼラチン은 徐徐히 泄瀉를 고치게하는 作用과 泄瀉로 因하야 惹起한 腸粘膜의 腐爛을 防止하는 作用이잇습니다。從來의 泄瀉治療藥은 此를 急히 고치게하는 藥이엿스나 泄瀉를 急히 고치게하는 것은 極히 危險한 것입니다。

외그러냐고하면 泄瀉를하는 때에는 반드시 腸속에 惡한 物件이 잇는것인바 急히 泄瀉를 고치게하면 腸속에는 언제까지든지 惡物이 殘在하야 身體를 爲하야 나쁜 結果를 惹起하는수가 종종잇습니다 此等事를 생각하면 タンニン酸ゼラチン은 徐徐히 泄瀉를 고치게하는 藥이라고 말할수잇습니다。

ベンツオナフトール는 腸內의 惡物을 消毒하는 作用이잇습니다。

アルシリン・ワイス……腸內의 惡物을 吸着하고 病原菌을 殺滅하는 作用이 잇는同時에 泄瀉를 徐徐히 고치게하는 作用이잇습니다。

チ ア ス タ ー ゼ……胃의 消化力을 補助하야 消化不良을 治療하는 作用이잇습니다。

マ グ ネ シ ア……チアスターゼ의 消化力을 强케하는 作用이잇습니다。

コ リ ゲ ン……ビタミンB와アミノ酸을 包含하엿습니다。엿줄것도 업지마는 ビタミンB와アミノ酸은 榮養劑로 使用합니다。胃나 腸을 傷하면 반드시 榮養이 나쁩니다。어가 른때에는 ビタミンB와アミノ酸이 꼭 必要합니다。

ベービー散은 以上의 藥品을 責任잇는 藥劑師가 調製한 藥劑인바 小兒專門의 健胃整腸劑로서 實로 優秀한 藥입니다。

時候가 조화지는데 따라 胃腸病도 增加합니다 사랑스러운 애기네가 될수잇는대로 病에 걸리지안토록 注意에 注意를 더하십시오。

ベービー散은 다음과가튼 病에 效力이 잇습니다。

一、小兒가 急히 泄瀉하는때 又는 恒常 軟便을 보는 境遇

二、大便이 냄새나고、거품이나 는粘液이 混合하는때

三、애기가 食慾이 업는때

四、먹는것을 吐하거나 消化되지아니한 大便을 보는 境遇

藥價 參包入 二十錢 五包入 三十錢 九包入 五十錢 二十包入 一圓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發賣元 株式會社 新井藥房

代理店 京城府金町二丁目 朝鮮賣藥株式會社 京城府和町 株式會社 同和藥房

全國藥店에잇슴品切時에는直接發賣元又는代理店에注文하시오

錦繡江山의 地下 寶庫朝鮮의 滿艦飾

立錐의餘地업는鑛山館人氣

産金五個年의縮圖

「특산전」도합순례를 다마치고 돌
팔도강산의 오만가지보배를 다
구경한 가자는 조선산업의 생
생한 일대축도(縮圖)를 머리속
에인상(印象)박은채 이번「특산
전」의 이채인 특설 광산관(鑛
産館)으로 발을 드려노핫다
관람객은 쉬일새업시 뒤에서
밀어닥치고 아페서들어간 구경
꾼은 이특설관에 무슨 마법(魔
法)의조화가 부려잇는지 그대로
부러서서 나올줄을몰라서 그야
말로 문자그대로 입추의여지가
업스리만큼 특설관(산관)은 한층
일 초만원의 성황이다 일반손
님에게 구경시키는것이 이번전
람회의 근본목적이라고는 할지
라도 『특산전』순례의 책임을마
튼 풍향기자의 지저로서 사
람들에게 파무처서 그중대한순
례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서야
될수가잇나! 이럴경우에는 이
러한 방법으로 보고저럴때에
는 저러케스리보는것이 임시응
변이라는것 가만히 무슨묘한도
리가 업는가하야 그대로 사람
틈틈에 끼여잇스라니까 도모지
진열장아픈 보이지도 안코나마
좌우벽면을 덥고잇는 항내(坑
內)의 착암채광(鑿岩採鑛)의 모
양과 천연의 사금채광(砂金採
鑛)의파노라마를 실감그대로 그려노
흔 대벽화(大壁畵)가 안계(眼
界)에 그득찬다
『오―라 저것이 바위(岩)을 뚤는
『보―링』이고 홍지사금을캐는『
도레지』라는것이 저것이로군!」
◇……◇
겨우 벽화만을 어더보고나서
나아갈수도업고 물러나올수도업
서 그자리에서 몸만을 겨우돌
려 뒤으로 도라보니 아람드리
금기둥이 다섯개나서잇는데 정
말 순금으로만든 금기둥이엿든
면 기가막혀 그자리에서 혼도
라도 할뻔하엿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잇스랴 이것은 총독부의
금후 조선산금 오개년계획 예
상의실량(朝鮮産金五個年計畫 豫
想實量)을 나무기둥으로 다섯
올세워노코 그우에다 금지(金紙)
로덥허논것이다 소화십일년 산
금액이 일억일천만원이엇다는데
소화십삼년도에는 삼십삼『킬로
그람』의 순금덩이를 산출 할
터이고 해마다 그산출을 더하야
서 오년후의 소화십칠년 에는
칠십오『킬로그람』을 산출할모
양으로 그 금덩어리가 저기둥
만 하겟다고 맷시에는 꿈에도
생각못할 일만년에 금덩어리
표(表)을 봉우어본 금덩어리
그러나 특산전의 일행이라고
할뿐조선 각광산에서 출품된오
십여종의 광물표본을 구경해야
만할터인데 사람들이 장꾸이루
다시피하고잇스니·어떠케 하라
그러나 이구석 저구석에서 틈
려오는 구경꾼들이 주고밧는이
야기로도 넉넉히 그광경을엿볼
수가잇섯다
◇……◇
「그를 조―라!금광(金鑛)으로
는 이것하고 저것하고 틈이제
일조흔 아주노다지편이겟는데」
어떤 금레안경에 기풍이 지
르른흥흥는 광산구역이나 착실
히 가진듯한중년신사의말이다
『금광이라는것을 어떠케 분별
합니까 저돌속에 어느대목이금
인가요?』
그엽헤섯던 어느청년화도가궁
금해서 뭇는말이다
『좋오보면 몰라!저것은 조흔
것이고 어것은 그만한것이고」
『글세요 잘몰르니까 뭇는것이
아닙니까 어떤돌이 어떠면조흔
돌인지몰릅니다 거둘는 그저
윈차돌인데 저것도 금광이라고
씨엿고 이것은 도저것은검
"금광』이라는것이 구경
히줄석광(鑛石鑛)이라는 거지
요?』
『암그러치 그를 조혼데 이
경우는구(鑛口)란도는데 너허야
대포할이 허저도 목구가 깟다
엄마벌이야 군수들에는 엄지못
할딱근거이니 그감시 빙잘수밧게
구만나니까 아픈로 우리의살길
이런조흔 광들이 조선에서도작
이터이는거지』
『이수연광(水鉛鑛)은 남가든
데무엇인니까?』
『이것도 금만못하지안케 벗
싼것이어 군수품으로 쓰이는모
양인데 갑스로는 금다음이 이
수연이고 다음이 수석이될걸』
『저사금(砂金)은 정말금덩어
리인가요?』
『이사람 정신업네 누가이만
흔사람아페 금덩이를 저러케느
러노왓슬라구 모형이라구쓴게보
이지안허』
『수선광 수선망하기에 어떤
걸가햇더니만 그런것가트면 우
리고향산에서도 만히본것갓구면
요』
『허허 여보게 그런것 구경
도고만두고 한시바삐 쪼처가서
출판이나하고오게!』 (大尾)
붉고 모도가다르니 말이예요」
『허허 그학생 보면 안다니까
그래 한눈으로 알자며는 상당
히 경험을싸야지 금돌에도 외
형과색채가 모다달라서 자그마
치 팔백종류나잇다네그려」

八道江山麗人競唱에 歡呼喝采滿堂如狂

是日也鄕土藝術의幽玄境에陶醉

今夜의順序도豪華版

본사주최의 팔도여류 명창대
회(八道女流名唱大會)의첫날―오
월삼일밤은 정각전 회장아페군
중의 장사렬이 빼치다못해 멀
리 전차길목까지 계속하야 다
시그렬은 경으로지워저서 교통
순사도 어이할줄 모르는 형편
이엇다 정각전 이십분 마침내
수천의 군중을 뒤에남기고 만
원의 게시와함께 문이닷치여젓
다 어떠케하면 이회장안엘 드
러갈수잇슬가하고 군중은 물끌
틋 부민관정문좌우를 포위하고
옷을 여보앗스나 굿게닷친문은
이편중의 입장을용시 허하지못
햇슴은 유감천만이엇다 정각이
되자 간단한 출연자의 소개가
잇슨다음 경성의 안화선(安翰
仙)문명선(文明仙)의 다섯명의
출연으로 정방별곡(正方別曲)이
란춤이 벌리지고 다음으로 긴
잡가(雜歌)가 끗난다음 대구(大
邱)의 전명득(全命得)의 단가가
시작되자 관중은 발흥흥을러가
면서 갈란절찬의소리가 장내에
넘첫다 진주(晋州)의 리소희(李
素姬)경성 오비취(吳翡翠)의 편
시춘(片時春)의단가에 노련한명
창의 여유잇는 태도는 흥분되
엿던 청중의 머리를 깔아안처
주엇다 그리고 나서 동래(東
萊)배설향(裵雪香)의 『평생아
자무』(平生我自舞)란는 노래가
시작되여서 구비구비꺽거넘기는
대목마다 청중은 박수! 박수!
노래가 끗나자 제청의 박수가
장내를 흔들엇스나 시간관계로
재청은 절대사절이란 마이크의
변명이 들려도 청중은 드른체
만체 단연 강경한 재청을 요
구하고 다음의 진행을 용인치
안허 무슨 변이나 날듯한것을
억지로 막음질어 하이얀 승(僧)
의 장삼에 붉은 띄를매인 봉
산(鳳山)의 엄명화(嚴明花)가시
치미를 떼고 『무정세월』 산염불
(山念佛)을 부르니 그옷과 춤
과 노래의 삼박자가 청중의 흥
분을 그대로 녹치지하야 어느
듯 재청의 박수도 까라지고 모
다 여기에 도취되고말엇다
청중은 무대와함께 노래부르
고 (송무의 틈)에 자기를 일
허버리도록 도취하엿다 다음 원
산(元山) 김수향(金壽香) 방축
(紅)봉의 『어랑타령』과 평양
김춘홍(金春紅) 김월심(金月心)
리정렬(李鼎烈)의 수심가 (愁心
歌) 병창이 끗나자 온몸간의 휴
게가잇서 청중들도 쪽 한숨을
쉬고나서 이부에드러가서 이소
향(李素香)의 『죽장망혜』 가야금
병창이 시작되여 가는다란 손
구락이 움직이는 가락가락에수
천관중의 아랑이 벌뜨이는광경
은 예술의힘이 얼마나위대하다
는것을 알만하엿다 함흥(咸興)
김순희(金順姬) 광주(光州) 전명옥
(全明玉) 부산(釜山) 정화선(鄭花
鮮) 경성 김수련(金守鍊)등의 단
가가 잇슨다음 신해중월(申海
中月) 오비취(吳翡翠) 김진홍(金眞
紅)등 경서명창들의 민요가잇고
순서는 끗낫스나 청중이물러갈
생각을 하지안흠으로 김소희(金
素姬)의 번외단가와 남도, 서도
의매홍걸티서 각각 그지방의특
색잇는 노래를 전원이 병창하
고 열시경에 억지로폐회하엿다

朴春載才談에 爆笑또腰折

이 팔도명창대회는 금오월사일
에도 계속공개할터이며 금야에
만흔 판중의 번잡을 피하기위
하야 다섯시반부터 회장을 열
터이다 (사진은 부민관의회장)

제이연예장의 민속예술대회제
구일밤은 개회이후 기록적인만
원이엿다 부민관에 밀렷던 군
중과 이대회가 아프로 하로박
게업스므로 기회를 노처버리는
무감이 업게하라는 판중은 첫
여름밤반작이는 별빛아래 인파
만경의 파도를이루엇다
이날밤에는 재담의 박춘재
(朴春載)씨가 격에맛지안흔 푸
른옷을 입고나와서 청중의 허
리를 꺽거주엇고 꽉두각씨도칠
신 신이나게 노라서 아프로하
로박게 남지안흔 이대회의 흥
을더욱도두며 금사일의 최후의
하로가 얼마나 더 흥에겨운것이
잇슬까를 상상키에 족한바이섯다

建築出願은山積 書式不備로難澁

市街地計畫令의施行以後에

鑛務도兼해代書規則改正

소화십일년사월 경성에 처음
으로 시가지계획령(市街地計畫
令)이 적용된것을 비롯하야 작
년오월에는 인천에, 금년유월경
에는 경성에 동령이 실시됨을
따라 그지역안의 건축공작물은
일체소관경찰서 또는 경기도보
안과의 허가를 밧도록하게되여
도내 허가관서에서 작년일년동
안에 인가원을 접수한수는 실
로 오천건이상이라는 어마어마
한 수에달하고잇다 그러나 조선에는
대정사년경령(警令)제오
호로 공포시행된 대서업취체규
측(代書業取締規則)이란것이잇
서 소위사법대서(司法代書)와행
정대서(行政代書)만을 인정하고
새로 필요하게된 건축출원대서
(建築出願代書)는것은 인정치안는
판게로 규측과 서식에 서틀은
사람이 함부로 건축허가원을만
들어 제출하는결과는 거이전부
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야 다
시 제출하게되여 이것이 건축
자측에게는 허가의지연을 보고
취급관서로는 사무는흔상 큰지
장이되는 이중의 손실이잇는사
실에 비치어 경기도에서는 건
축대원규측(建築代願規則)을 만
들어 도지사의 결재까지맛게되
엿스나 이규측의 근거법령인전
기경령(警令)에의한 일반적규측
이 이것을 인정치안는 판게로
아직 실시를보지못하고잇든것이
다 그러나 경무국에서도 건축
대서의 필요를 인정하는동시에
『골드·랏슈』에 해마다 격증하
야가는 광업출원을 사실상에잇
서서 대서하고잇는 광무소(鑛務
所)도 엇졍하 단속할필요를 인
정하게되여 작년말에 건축대서
와 광무대서를 인정하는 대서
업취체규측의 개정안을 만들어
이래 심의실(審議室)에서 심의
중으로 불원에 심의를 마치고
공포실시를 보게되엿다 따라서
건축대원규측이 도령(道令)으로
발포되어 경기도내에는 건축대서
제가 실현될날도 멀지안허 새
로 건축하려는사람들에게 만흔
리편과 안전신속을줄것으로 크
게 기대되는바이다

"朝鮮籠球選拔軍"을 比律賓에招聘하겟다"

昨日渡來한比軍바監督談

비률빈농구선발단(比律賓籠球
選拔團)일행은 작삼일 오후네시
십오분 경성역에내려 정도호텔
에투숙하엿는데 일행에는 누구거판거
자들의 서반아혈통이잇섯다 정
성을매나는 비률빈의감독 『바우
티스터―』씨는 감회기픈말로
다음과가티말하엿다
조선에와서 반드바 넘치는성
원은 우리의 경기생활중에잇
지못할 기록의 하나일가 합
니다 이번 롱구전을 통하야
조선의 여러분과 우의(友誼)
가 두터워짐을 스스로 기뻐
합니다 우리가 고국에 도라
가면 명년봄에는 조선롱구선
발군을 초빙하도록 힘쓰겟슴
니다 끄트로 조선의 롱구팬
들에게 귀지(貴紙)를 통하야
감사의 뜻을 표하야 주세요
(사진은 경성역을 떠나는 비
률빈롱구단)

四月中의火災 市內에十七回

경성에서 사월중에 일어난 화
재는 회수가 십칠회 손해가사
천일백팔십오원으로 작년사월의
회수 십칠회 손해 이천칠백칠
십원에 비하면 상당한증가를 보
이고잇다 사월은 원래꼿구경때
로 일반의기분도 들뜬기쉬운때
에 기후는간조하고 바람도잇서
불이나기가 쉽다고는하나 작년
보다도 그회수가만코 피해액수
도 만타는것은 시민의 주의가
그만큼 적엇던것이라고 문자
데 소방서원의활동으로 그러큰
불이 업슨것만은 요행이라할것
이다

北米倉町小火

삼일오후오시삼십분경에 시내
북미창정(北米倉町)사십삼번지
나이정사한(鄭四漢)방에서 발화
하여 집한채를 전소하고 삼십
분후에 진화하엿다는데 손해는
오백원가량이고 원인은 실화이
라고한다

外金剛과高秣山에 臨時郵便取扱所

체신국에서는 청진부 고말산
공원(淸津府高秣山公園)과 외금
강구룡연(外金剛九龍淵)에 오월
상순부터 시월말일까지 림시통
신기관을 설치하야 절수류의판
매통상우편물의 인수기념『스탬
프』날인등의 사무를 취급하야
유람객의 편리를 도모케되엿다

妙齡麗人이 自殺未遂

생명에는무관

꼿시절이지나고 푸른나무이피욕
어저생명을끈 한창의꽃하고잇는
이때 아리따운 청춘녀성이시버
리려든 여인이 잇섯다 서내봉내
정(蓬萊町)삼정목 일백팔십구번
지홍석의(洪錫義)(假名)씨의이
히자(洪喜子)(假名)(二〇)는지난사
월이십구일 오후두시경에 그의
모친에게 꾸지람을 듯고는 그길
로집을나가 남산정(南山町)이정
목천진려관(天眞旅館)에 투숙하
고잇다가 오월일일 오후십일시
경에 집으로유서를 써보낸다음
잠자는약『아다린』을 만히먹고
고민하고잇슬때 마츰유서를보고
달려간 그의형이 즉시 죽첨정
(竹添町)삼정목 고려병원에 입
원을시켜 치료중이다 요행생명
에는 관게업스리라고한다

親兄刺殺犯送局

【咸南支社發】지난달삼일오후
열시쯤 함흥부 만세정(咸興府萬
歲町)자택에서 자기친형을 찔러
죽인 김홍진(金洪鎭)은 그동안
함흥서에서 엄중한취조를밧고잇
든바 그취조가끗나고 삼일오전
열시쯤 상해치사(傷害致死)의죄명
으로함흥법원검사국에 송치되얏다

今日의運動

▲籠球＝普專主催 第十一回全朝
鮮中等學校籠球大會第二日…準
決勝 松都中學對中東學校(午
後四時)培材中學對普成中學(午
後五時半) 安國町普專球場(觀
覽無料)

曆

▲五月四日(水曜) 陰四月五日
▲干支 丙申
▲日出五時三十六分▲日入十九時廿五分▲日南中 十二時卅
分十八秒▲晝間 十三時四十九分
▲月出 九時四分▲月入 廿三時
四十一分▲滿潮(仁川)七時五十五
分과廿時五分

阿峴町强盜 西大門署서逮捕

共犯二名繼續嚴探

지난이일 오전세시경에 부내
아현정(阿峴町)사십번지의 리백
유씨집으로 네마장수 김갑부(金甲
釜)등이 흉기를가지고 습격한 살
인단강도사건에 대하야는 그동
안 부내각서에서 범인을 체포
코저 맹렬한활동을 계속하고잇
던중 부내 서대문서에서 유력
한단서를어더 삼일오후 두시경
에부내 왕십리(往十里)상밥집을
습격하야 리모(李某)를 체
포하여와서 취조한결과 그범행
을 자백하엿스므로 방금다른공범
을마저 잡고저 계속활동중이다

총딱

물가는 오른다 오
르다하니 대체 얼
마나 오르다마는고
백가지 물가가 다
오른다는데 오르지
안는것은 월급쟁이
봉급뿐이라고▲물가
가 오르니 오를만
큼 봉급은 깍기운셈이라 이래
서야 되겟느냐고▲월급쟁이신세
를 두둑히 생각해주겟다는듯이
서울의 은행측에서부터라나▲은
행은 돈도만켓지만 행원들의일
이 돈뭉치주무르는노릇이라 살림궁
한생각하다가 은행돈잘못주물러
서는 안될테니까▲그도 그러켓
지만 어디 하필 은행원만이그
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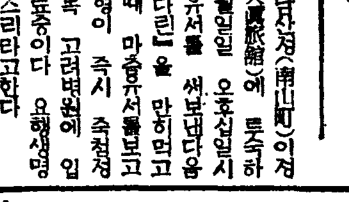
鑛業勞働者의 扶護規定새로制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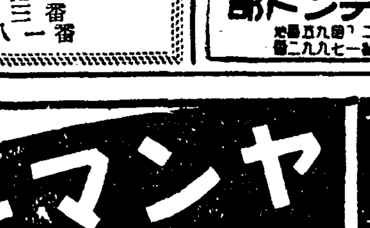
五日에公布施行豫定

【東京電話同盟】조선의 광업(鑛
業)은 근년에 비상한 진전을 보
이고잇는데 금후도 점점 그발
전이 기대되고잇스나 한편에 광
산재해와 사고도 이에따라 해
마다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광
부의 부조와 부호(扶護)에 관
해서는 일반로동자와가티 아모
법규가 업스므로 조선총독부에
서는 이번에 광부의 로동조건
(勞働條件)을 조정하고 노동자
한광부에게 부조를하야 노동자
금을 응화시키어 광부생활의안
정을 도모하기위하야 광업제도
의일부를 개정하고 필요한규정
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야 삼일
에열린 각의(閣議)의 승인을어
덧다 그리고 어 제령안(制令案)
은 오일에공포하야 곳 시행수
속을 밟을터이며 이로써 조선
광업계의진보와 발전을 위하야
크게 기대되는바가 만흘것이라
한다

木의芽 날새
(나무) (싹이)
부터, 여름철이되
여오면, 급작이
上氣와頭痛, 眩暈하
는분이만히집니다
只今부터고처지안흐
면惡化할뿐입니다
곳仁丹을常用해주십
시요絶對로解消합니
다

各社レコード蓄音器
各種樂器
東洋樂器店
京城府樂園町一三八
電話光化門六九三番
振替京城二八〇八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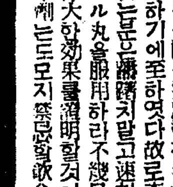

東テント商會

甲位入選 於農林省小型デーゼル比較審査 昭和十三年二月二十四日發表
入選機 S型四馬力 H型五―六馬力
世界唯一 小型純冷始動 ヤンマーヂーゼル
農工移動用
大量製産 在庫豊富

1.5 2 3 3.5 馬力 4 4.5 5 馬力
据付小動力用

5―6 7―8 馬力 10―12 15―17 馬力
本機特長
一、燃料費極メテ僅少
二、純冷始動ニシテ取扱容易
三、回轉円滑
四、作業能率倍加
五、輕量ニシテ移動容易
六、サービス万全
カタログ進呈
京城府京城驛前 (株式)山岡發動機 京城支店 電話本局一〇〇三番
本社・大阪市北區茶屋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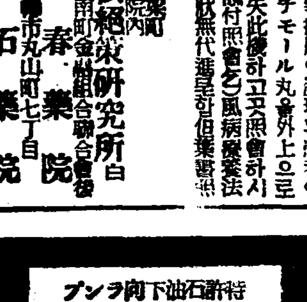
風病
世間은風病을不治病이라고한다事實風病에걸리기만하면그병으로해서一生을망치게되는것이다그러면風病은꼭不治病인가하면決코不然하다何由오하면從來漢醫는이것을簡單히風이라고해서所謂治風한다는藥만을使用하엿고細菌에對해서는治療를하지못하엿든까닭이다本人은有名한殺菌劑特히癩菌을溶解하는藥과또細胞를增進하는補血劑를配合完成한有名治癩劑를發明하기에至하엿다故로本病에苦痛밧는同胞는躊躇치말고速히強壯チモール丸을服用하라不幾日에本劑의偉大한效果를證明할것이다그리고本劑는도모지藥忌할飮食이업고…特히肉類와魚類其他一般滋養食物로攝養할사록效果가迅速할것이다…強壯チモール丸外上으로드리오니勿失此機하고照會하시오(返信料添付照會之)風病療養法及其他感覺狀無代進呈
本店 釜山府草梁町 回春藥院內 癩病根絶藥研究所
支店 大邱府南町 金光組合藥合會
回春藥院
壽石藥院

림질약
可驚할根治藥!
急慢性男女淋疾에百發百中藥價三圓어모리藥을써도안나신분은곡服用하시요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濟世堂藥房
振替京城二二九九番

リード―式

돈버는機械
五合의쌀이 八升의菓子가된다
(申請次第型錄進呈)
釜山府寶水町一丁目 城野製作所

全國で大評判の 東京カメラ
暗室不用カメラ……五十錢より各種
全島内に特約店あります
名古屋市東區大幸町五四 東京カメラ製作所 振替名古屋五〇〇七番

絶對安着する ヒヨコ
發育迅速強健無比
白色レグホン
名古屋種雄…百羽…九圓五十錢
右は荷造費箱代送料打電料共の値段で御座います
特價大分讓
雄
百羽……二圓九十錢
五百羽……十二圓四十錢
千羽……二十二圓四十錢
名古屋市昭和區廣路町石坪八〇 成田養鷄場 振替名古屋六八二二番

特許石油下向ランプ

特許ガソリンランプ

特約店募集
カタログ進呈
合名會社 柴田商店
名古屋市中區古渡町四 電話南二一一二 振替名古屋二一一二

中部版

楊州兒童愛護週間 理髮料沐浴가減免

【楊州】오는 오월오일부터 십일까지 일주일동안 전조선아동애호주간을 마지하야 양주면(楊州面)과 양주경찰서에서는 어린이에대한 행사를 다음과가티 하기로 되엿다한다

一、乳幼兒健康審査 生後六個月以上滿五歲以下乳幼兒中으로 審査 五月七日 表彰 五月十日

一、國內在住兒童無料診療 議政府 楊州病院 濟濟病院 濟東病院에서 健康診斷과健康相談에限하야無料로한다

一、入浴料半額 五歲以下無料 十二歲以下二錢 場所는議政府

一、理髮料半額 十二歲以下五錢均一

一、學用品割引 場所는 議政 大正 昭和 各商店 議政府 十日 丸三 商田各商店에서 學用品에限하야一割引

昨日臨時京城府會 "區整"案等十一件可決 戶別稅賦課等級決定件만은 小委員會에付託하야審議中

경성부에서는 삼일오후 두시부터 경성부청 회의실에서 림시부회를 소집하고 금년도 호별세 각납세의무자별 부과등급결정(戶別稅各納稅義務者別賦課等級決定)의건을 비롯하야 일백팔만 륙천여원을 드려서금년도부터 삼개년계획으로 착수할 경성 제이 토지구획정리 사업(第二土地區劃整理事業)에 대한 제반안목과 남산주회 도로개수비(南山周回道路改修費)등 여러가지기채변경(起債變更)과 토지평수할부과 사업결정(土地坪數割賦課事業決定)등 십이안건을 상정심의하엿다 호별세 부과등급결정의건은 전원위원회(全員委員會)에돌려서 소위원회(小委員會)를 구성하야 심의하기로하고 그외십일안건은 일사천리로가결확정하엿다 특히 호별세등급결정의안건에잇서서 현행법규대로하면 연소득 사십만원이상을 일등급으로 규정되여잇스나 사십만원이상에도 여러층이잇스니 루진적(累進的)으로 더구분하야 규정하는것이 조켓다는 의원들의 의견진출이 잇섯다

七〇八一五戶에 二三八二四九圓賦課 稅額은增加이나稅率은如前 京城府戶別稅總額

삼일오후 두시부터 경성부청 회의실에서열린 경성부회에서는 소화십삼년도 호별세 각납세의무자별부과등급결정(昭和十三年度戶別稅各納稅義務者別賦課等級決定)의 안건을상정하야 이를전원위원회(全員委員會)의 비밀회의에부처서 소위원회(小委員會)를구성하야 신중히 심의를하엿는데 금년도에부과할 호별세부과세의 예산총액은 이십삼만팔천이백사십구원으로 이것을 납세의무자 호수 칠만팔백일십오호에 부과하기로 되엿다고한다 전년도에비교하야 이만팔백오십원이 증가되엿다 이것은 납세인원의 증가와 납세자 자력의 증진으로 말미암은 자연증수로서 물론세률에대한 변동은업다 작년도의 경성부내 호별세부과세의 제일노픈 등급자는 십구등이엇고 그세금은 이천원이엇다

金浦郡主催의 映畵와講演會盛況

【金浦】지난이십팔일 오후여덜시부터 김포군청광장에서 김포군주최로 시국영화회를 개최하엿는데 정각전부터 운집한일반관중으로 공전의대성황을 이루엇다 그의일인 이십칠일에는오후두시반부터 김포공소학교 강당에서 등정(藤井)씨를 초빙하야약일시간의강연회가잇섯다한다

金浦東尋常小學校 後援會費倍加決定

【金浦】김포동심상소학교(金浦東尋常小學校) 교후원회에서는 지난이십구일 오후두시부터 동교강당에서 제육회총회를 개최하고 회장박일양(朴一陽)씨로부터 작년중 회무및회계보고가 끗난다음 십삼년도 세입세출 예산의편성을 한후회칙일부를 개정하고 종래회비 육십전을 일원이십전으로 개정하야 금년오월이내로 전부납부하기로 되엿다한다 그회비를 증가하게된바 교장(朴校長) 신임초부터 아동체육에관한제반시설이 불충분하엿는데후원회와 연락을 취하야가지고적절한 체육에관한 시설을 도모코저함이라한다 그리고 명년도부터는 후원회 입회금을 이원씩 납부하기로 결정하엿다 한다 그리고 계속하야 학부형 총회를 개최하고 각학급별단합 선생과 학부형간에 여러가지의 히망과 의견진술이 잇슨다음 동 여섯시반에 산회하엿다

京畿道知事로부터 二十三名을表彰 中等校優秀卒業者中

금춘경성부내 중등학교를마친 수천명의 남녀학생중에서 성적이출중하고 신체가튼튼하고 행실이단정하야 가히그학교의 모범이될만하다고하야 감자(甘蔗)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밧는학생중 조선학생은스물세명인데그씨명은다음과갓다

京城第一公立高等普通學校 全容寬
京城第二公立高等普通學校 全琰宅
京城公立農業學校 咸元鎔
京畿公立商業學校 朴勝說
京城公立職業學校 吳瑀祥
養正高等普通學校 金重冕
普成高等普通學校 金東式
培材高等普通學校 閔爾基
徽文高等普通學校 丁根
中央高等普通學校 鄭漢鎭
善隣商業學校 朴熙煥
東星商業學校 朴道淳
大東商業學校 李光周
漢城商業學校 河昌源
協成實業學校 余根沃
京城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鄭在仁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徐玉麟
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 金淑子
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 文玉仁
培花女子高等普通學校 崔信德
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 宋貴賢
京城女子商業學校 張義淑
槿花女子實業學校 車宗金

地域地區設定案 來六月쯤에完成 今年內에는實施될뜻

시가지계획령(市街地計畫令)에 의한 경성부내의 지역과 지구(地域、地區)의설정에대하여서는 총독부의지령에의하야 벌써전에 부당국에서 원안작성을 밧비하고잇섯는대 오는륙월말에는 끗나게되여 느저도 금년안으로는 실시를보게될터이다 시가지계획령에의한 지역이라는것은 공업(工業)상업(商業)주거(住居)의 세가지구역에 미지정(未指定)의네가지가 잇고 지구에는방화(防火)풍치(風致)미관(美觀)풍기(風紀)구역이외에 건축(建築)내지 영업(營業)지구를 인정케될터인데 례를들면 영등포(永登浦)일대와 청량리(淸凉里)방면은 이미 공업지역으로 지정이되여잇는것과 가튼것으로 압흐로 다시 공업지역의 지정도잇고 상업지역 주거지역등을 정하야 공장의 건물은 공업지역이외에는 할수업시될터이고 지구는 례를들면 풍기지구는 유곽이나 료리집이 모혀잇는 신정(新町)서사헌정(西四軒町)욱정(旭町)등이될터로 그지역외에는 그런종류의 풍기를문란케하는 영업은 허하지안는다던가, 방화지구는 건축재료를 선택하야 석조나 연와제로하게하야 번화한곳으로 불이나도 연소치못하도록하며, 풍치지구는공원지대로하며, 미관지구에는 집웅지어도상당히 체재를 가추어짓도록하는 등 여러가지 규정이잇는데 이지역, 지구의결정에따라 건축에도 여러가지로 미해결의 문제가 전부 해결될터이다

大峴區劃整理費 今年度分十八萬九千圓 今後三年間繼續事業

경성부 공영부(工營部)에서는경성부 제일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영등포(永登浦)와 돈암정(敦岩町)에 공사를 착수하야 진행중이거니와 이번 부내대현지구(大峴地區)에 대하야 제이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하기로되여 총독부로부터 그사업시행명령을바다 금후 삼개년계획으로 총경비 일백팔만륙천십이원을 계상(計上)하야 이를 삼일에열린 림시부회에 상정하야 가결확정하엿는데 소화십삼년도지출액은 십팔만구천원이고 십사년도지출액은 오십사만사원이며 십오년도지출액은 삼십오만칠천사원이라고한다

京畿道廳員愛國貯金 每人前十錢以上으로

경기도청의 오백여명청원은 오월일일부터 각자의 봉급에서한 사람압십전이상식 애국저금(愛國貯金)으로 떼여서 저금키로결의하고 곳실행하기로 되엿다한다

楊州警察署에서도 基督敎役者와座談

【楊州】양주경찰서(楊州署)주최로 지난삼십일 의정부공회당(議政府公會堂)에서 기독교 교역자(基督敎役者)좌담회를 개최하고 주최자측으로는 정상서장(井上署長)소판고등계주임(小坂高等係主任)이 열석하엿고 북부양주교역자(北部楊州敎役者)이십명이 열석하야 현하시국에대한 인식과 총후보국(銃後報國)에 대한 격의업는좌담을 하엿다 더욱이 모임에잇서서 반드시 황국신민의서사(皇國臣民誓詞)를 랑독하도록 협의하고 해산하엿다한다

議政府基督敎會에 國旗揭揚臺를設置

【楊州】의정부기독교회 (議政府基督敎會)에서는 현하시국에잇서국기게양대의 필요를 절실히 늣끼고 이번에 사십오원으로국기게양대를 세워두기로 하엿다

漢江물넘드라도 뚝섬來往은安全 살고지다리竣工在邇

왕십리(往十里)에서 뚝섬 (纛島)으로가는 도중의 중랑천(中浪川)에는 나즌 돌다리하나밧게업서 여름장마때만되면 이다리가 아주 물에 잠겨버리고 교통이 두절되어 여러가지로 곤난한바 만헛스므로 뚝섬주위에 대규모로 방수제방(防水堤防)을 축조하는동시에 여기에도 노픈다리를 가설하게되어 내무국토목출장소에서 공사중 최근 거이준공이 갓가워서 여름장마전에 완전히 개통될예정에잇다 그러케되면 뚝섬과 경성파의 교통은 훨씬 편리하게될터이다 (사진은 공사중의 살고지다리)

白骨메고通過한탓 洞民들이作黨毆打

【楊州】양주군백석면 복지리(楊州郡白石面福地里) 김칠룡(金七龍)은 지난사월오일에 친척되는사람의 면례에참례하엿다가 도라오는길에 방성리(防城里)구고동리압흘 지날때에 정씨동의 동리사람수십명이 작당하야 무수난타하야 인사불성에이른것을 동리진흥회집회장소에 감금한일이잇섯다한다 자세한 이야기를드르면 피해자 김칠룡은 지난오일 청명일을기하야 처처의백골을 흥부동묘지로부터 양주군회천면회정리(楊州郡檜泉面會亭里)지산으로 이장(移葬)하게되여 전기동리압흐로 지나간것이 원인이되여 구타감금을당하얏다한다

鐵湖地方不雨로 麥作과苗板에異狀

【長湖院】경기충북지방에는 작년추한에 동사하고남은보리가금춘이래로한번도 비다운비가오지아니하엿스므로 발수기(拔穗期)가 되엿스되 아직성육이 불량하야 흉작을면할수업게되엿스며 또한채소는물론 일반 전작물도 가물을타서 것마르는 현상이다 일기는연일냉냉하야 비가올것갓지아니하다는바 이대로 가물이 계속되면 금년도작(稻作)의못자리에도 영향이 적지아니하리라고하야 일반농가에서는 비오기를 고대하면서 염려중이라고한다

江華에도旱騷

【江華】벌써부터 물소동이 나기시작한다 강화에는 오래동안 봄날이 가무러 맥작(麥作)에는 비해가만흘터인데 금명중으로 비가온다드라도 삼할이상의 수확이 감소되리라하며 아프로 일주일이 지나도록 만일에 비가 오지안는다면 모자리까지 물이 딸라 타버릴지경으로 농가에서는 장래를 우려하야 마지안는다고한다

竹山地方에도 旱魃로憂慮

【竹山】경기도 죽산지방(竹山地方)에는 봄이후 한달이상 비가 오지안코 한발이 계속되므로 모판도 태반이나 못해서 시기가 느저가며 맥작(麥作)도심히 우려되는바 일반농가에서는 초조함을 금하지못한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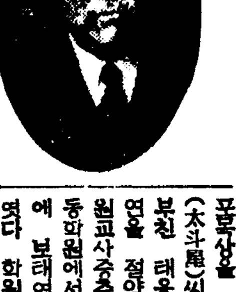
金浦司法書士組合組織

【金浦】김포군내사법서사 (司法書士)일동은 천장가절을 당하야 지난이십구일에 사법서사 조합을 조직하엿다는데 그조합을조직케된원인은 부정사건방지와수탁경쟁(受託競爭)방지와 사무비절약 동업자간 친목을도모하고저함이라한다 그리고조합사무소는 김포읍내에 두기로 결정하고 방금사무소이전 허가를 수속중임으로 오월십일부터 집합사무를개시한다하며 역원에는조합장 김경흠(組合長金敬欽)리사심일섭(理事沈一燮) 간사정행면(幹事鄭行冕)씨삼인으로정하엿다 한다

江華郡叺生產者 愛國貯蓄組合創立

【江華】시국 대책과 국가정책에순응하야 개인의 저축을도모코자 강화군내 정오수의 팔할이나되는 농가에서는 가마니로생산하는 수익중에서 십일제(十一制)로써 저축코자 강화군가마니생산자애국 저축조합(江華郡叺生產者愛國貯蓄組合)을 창설키로되엿다한다 그런데 이들의 연수입총최소한도로하고 그저축되는금액은 연이만원을 초과할것이라한다

父親壽宴費節約 忠信學院에義捐 鍾路太斗星氏美擧



시내충신정(忠信町)에잇는 충신학원(忠信學院)은 소화오년에 창립되여 원장 최중규(崔重奎)씨의 희생적 노력으로 지금은팔백명의 다수한아동을 수용하고 잇는데 이번에 종로[illegible]정목에서 포목상을 경영하고잇는 태두성(太斗星)씨는 지난사월이십삼일 부친 태응선(太應善)씨의 환갑연을 절약하여 오백원을 동학원교사증축비로 기부하엿스므로 동학원에서는 그기부금 건축비에 보태여 교사를 확축키로되엿다 학원이날로 성왕하여가는 때에 유지의 이가튼 도타운기부도잇서 관계자는 크게깃버하고잇다 (사진은 태응선씨)

道廳愛國貯金四五〇圓

총후보국주간 마즈막날인 애국저금일(愛國貯金日)의 경기도청원의 저금액은 합계 사백오십원에달하는데 이것은 이번뿐이 아니라 금후사변이 끗날때까지 매달봉급에서 제하야저금하기로 되엿다고한다

버스와自轉車衝突 自轉車탄사람負傷

이일오후다섯시반에 청량리정(淸凉里町)으로부터 서대문으로 향하야 달리고잇던 경전뻐스운전수 박경복(朴景福)이 전농정(典農町)오백팔십오번지압을 지나려할지음 마주편으로부터 달려온 양주군구리면 신내리(楊州郡九里面新內里) 이백사십팔번지 오기순(吳基淳)이란 자전거와 충돌하야 오기순은 왼편손에 전치십오일을 요할 부상을 입엇다

鍾路署管內 腸窒扶斯豫防注射日割

五月四日(第一回) 五月十一日(第二回)
- 慶雲町五五先 慶雲町
- 西大門町派出所 西大門二丁目
- 放送局入口 西大門町一丁目
- 巡査敎習所 光化門通
- 宗橋禮拜堂 都染町
- 壽松小學校 壽松町
- 中學橋 中學町
- 醫專病院入口 司諫町
- 昭格町派出所 昭格町
- 京畿中學校前 花洞町
- 三淸町一〇二先 三淸町
- 八判町十字路 八判町

五月五日(第一回) 五月十二日(第二回)
- 漢城商業學校 松峴町
- 徽文小學校 安國町
- 同德女小學校 寬勳町
- 堅志病院前 堅志町
- 齋洞小學校 嘉會町
- 徽文中學校裏 桂洞町
- 京畿女高學校 齋洞町
- 校洞小學校 慶雲町

五月六日(第一回) 五月十三日(第二回)
- 雲泥町六十一番地先 雲泥町
- 勸農町一一六先 勸農町
- 苑西町九五二四七先 苑西町
- 臥龍町一二 臥龍町
- 益善町一一五四〇先 益善町
- 授恩町消防派出所 授恩町
- 三光幼稚園 薰井町
- 宗廟前廣場 長沙町
- 妙心寺
- 鍾路三丁目派出所 鍾路三

五月七日(第一回) 五月十四日(第二回)
- 敦義町一〇三先 敦義町
- 파고다公園裏 樂園町
- 和光敎園 觀水町
- 第一樓支店 貫鐵町
- 鍾路署內 鍾路二
- 朝鮮劇場 仁寺町
- 朝鮮館前 瑞麟町
- 鍾路署內 南大門一
- 京城女子保育學校 公平町
- 右同 淸進町
- 右同 鍾路一

地方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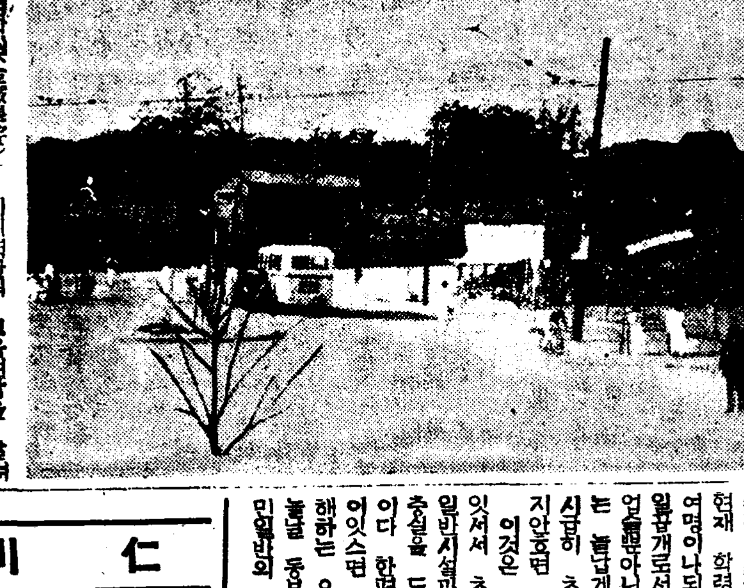
▲金圭源氏(前楊州郡農會書記)開城府로 榮轉人事次本社楊州支局來訪
▲沈德求氏(濟東病院醫師)新任人事次本社楊州支局來訪
▲國城寺榮氏(江華警察署員)今般京城本町警察署에榮轉人事次本報江華支局來訪
▲開城私立松都學院生徒百十二名李泳國氏引率下本社見學

東部京城繁榮記 ②

土幕民整理보다 競馬場移轉急務 人口는激增、小學校는大不足 發展道上明暗兩面

현재에도 이동부경성(東部京城)에는 논이 삼천이백오십삼단보 밧이 사천오백팔십사단보로 합계 칠천팔백삼십칠단보의 경작지(耕作地)가잇스니 여기에는 벼 보리 밀 할것업시 오곡이 생산되며 주로 만히생산되는농작물은 채소(菜蔬)류이다 그다음으로 공업지대는 제기정(祭基町)회경정(徽慶町)등을 중심으로 유도시킬 방침을세우고 잇스며 현재에도 창신정을 중심으로방직파 고무공업의 공장이만히잇다 상업지대는 주로동대문과동경성역사이의 전차선로를 중심으로 되여잇고 그밧게는 모두 주택지로 이용되고잇다 장래에는 도시구획정리계획에 동경성역을 중심으로 하야 개운사(開運寺)압파 다시 기슭을 도라서 돈암정(敦岩町)동소문에이르는 큰길이 개통될것이므로이부근엔 주택이 운집할것이며 여기에 따라서 상업이 발달될것이다

이러틋 놀나운 『템포』로 발전해나가는 이지역안에는 어듸나맛찬가지로 도태현상이 업슬수업는것이여서 일만오천호를넘는 토막민(土幕民)문제가 잇다 『까치박죽』이라하면 토막촌으로 유명하거니와 안암정 (安岩町) 신당정(新堂町)[illegible]에만하더라도 만호가운데토막민이 살고잇다이토막민들은도시계획에따라서집을이헐리고다른대로처리하지안흐면 안될터인데 경성부에서는 그들을위하야 돈암정(敦岩町)과 정릉정(貞陵町)의 산중허리에 토막촌을지정하고 기회잇는대로 그곳으로 철거하도록 권유하고잇스나 실제사정으로비처보면 그들은대부분이 그날그날을 파라서먹고사라가는이들이라 정든데나 돈벌이의 곳을떠나 산중허리로가게되면 일을어들기회가 업서지므로 생도가업는것이다 그래서 아모리 리상적인 거주지를 그들에게 주어가면서 권유해보앗댓자 생활재료가 어더지지안는이상 이것은 아모런 효과를내지못할것이다 그들은 벌서토막속에서 십수년동안사라와잇고 자기가살고잇는 부근에전통적인 생활문제가 가지고잇슴으로이일조일석에 해결될문제가 안이다 ◇



이지역안의 교육현상을 살펴보면 신설정(新設町)의금성의원(金城醫院)을 비롯하야 각각 그들의 자체교육기관까지 보던 전문정도의교육기관으로대학예과 보성전문 법학전문등세개며 중학이 여덜개 나회이일곱개다 그러나 전문파 중학은 실지에잇서서 그들주민에게 하등의 특혜적(特惠的)인영향을가진것이못되고 그들의 자체교육기관으로 가장 현실적 효과를주는 초등교육기관이 문제인데 현재 학령아동이 이지역안에만 여명이나되는터이나 겨우 학교일할개로서는 도저히 충당할수업을뿐아니라 해마다 주택지대에는 놀납게 인구가 증가되므로 시급히 초등교육기관을 증설하지안코는 안되게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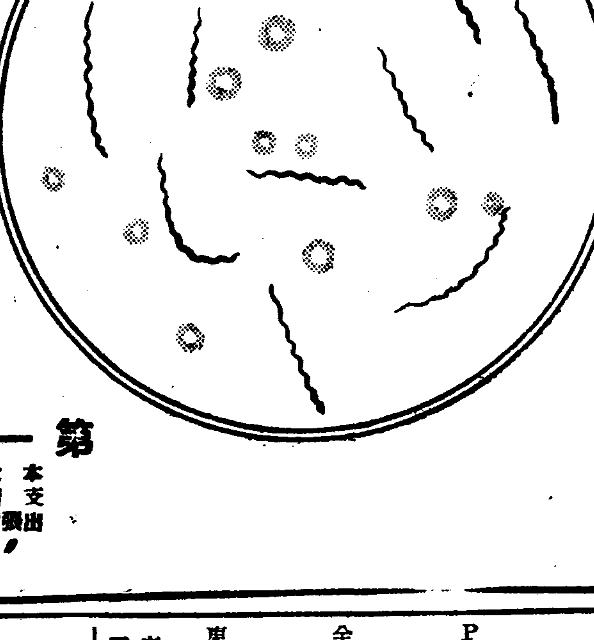
이것은 발전하는 동부경성에잇서서 초미의 문제인 동시에 일방시설과 병행하야 하로바삐 충실을 도모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한편으로 발전하라는 노력이잇스면 그와반대로 발전을방해하는 요소가 잇는법이다 오늘날 동부경성의 발전에도 주민엄박의 불평의 대상이되는 문제가잇다 그것은 헤아리기에겨를이업시 여러가지가잇다 그가운데서 제일 큰 문제가 경마장(競馬場)의 이전문제다 다년간 주민의 요망으로 내려오던 가축시장 시탄시장문제는 불원 청량리로 옴겨준비가다되여서해결될셈이나 그와함께 숙제중이던 경마장은 아즉도 한동의안이 서지안코 그냥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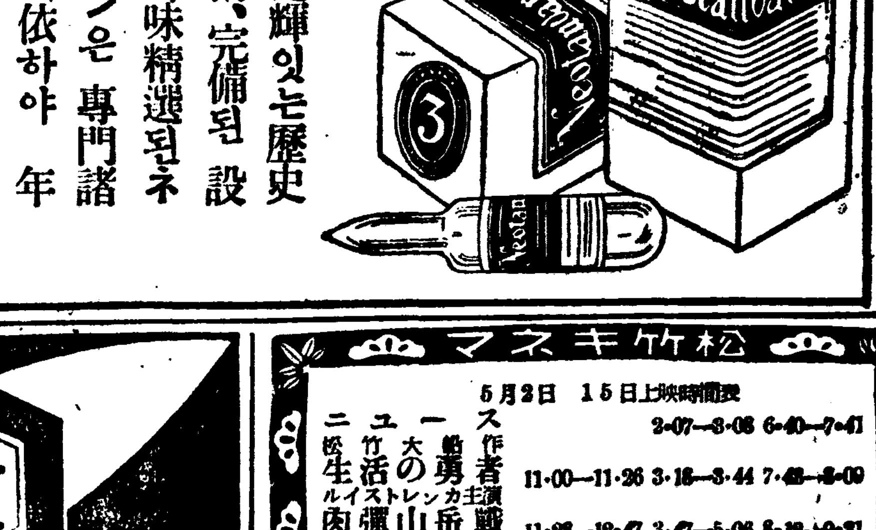
이경마장은 현재상태로보아서 동부경성의 중앙부 제일중요한 지점에잇는데 이것을 이전해버리고 이뒤의자리를 정리 하야 상업지대나 혹은 그지역의 절실한 필요에 당면하고잇는 오락지대로 만든다면 조켓스나주민에게는 한층의 리익을주지못하는 무용의장물——경마장이이지구(地區)의 심장부에 기생충처럼부터잇서서 이지역의 호흡을취하고 생장파발육을 방해하고잇다 (사진은 청량리큰거리)

仁川

第一回 全仁川學院聯合初音樂大會

▲時日 五月九日午後七時半
▲場所 山手町公會堂
▲會費 無料(但場內整理費十錢)
◇主催 仁川學院聯合會
◇後援 朝鮮日報社仁川支局
府內十餘團體出演





靜脈注射用
ネオ.タンワルサン
國産品の嚆矢
驅黴砒素劑

二十五年의 光輝잇는歷史와 熟練된技術、完備된 設備에依하야 吟味精選된네오タンワルサン은 專門諸大家의 推奬에依하야 年年그聲價가 益益노파진다

模造品에注意
驅黴成績의完璧과治療의完全과를期하는 臨床家諸位는모두本劑를愛用한다

適應症
黴毒의 各期와 黴毒으로 이러나는各種의 隨伴症狀의 治癒와豫防에適함。
또 脊髓癆、麻痺性痴呆、回歸熱、一般스피로헤-테에因한 疾患、마라리아、鼠咬症、瘴氣熱、熱帶莓瘡等 에도 特効잇슴
또天疱瘡、扁平紅色苔癬、鱗屑疹等 砒素劑應用의 모든 範圍에 良効잇슴

包裝
一號(〇・一五瓦) 二號(〇・三〇瓦) 三號(〇・四五瓦)
四號(〇・六〇瓦) 五號(〇・七五瓦) 六號(〇・九〇瓦)

또 靜脈內注射不可能의患者에 適當한 皮下注射用 ミオ・アーセミン 잇슴
또 砒素劑와 交互使用에 適當한 蒼鉛劑ギフロン의 還用을願함

製造發賣元
第一製藥株式會社
本社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三丁目
支店出張所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十六番地 奉天市大和區平安町三番地

松竹キネマ 明治座
5月2日 15日上映時間表
ニュース 2・07―3・08 6・40―7・41
松竹大船作 生活の勇者 11・00―11・26 3・16―3・44 7・48―8・09
ルイストレンカ主演 肉彈山岳戰 11・28―12・47 3・47―5・06 8・12―9・31
高田浩吉主演 闘の猫太つべ 12・50―2・04 5・02―6・23 9・34―10・46

味覺極樂 キッコーソウ醤油

五月四日부터向三日間 特別名畫週間
土、日、祭祝日晝夜二回一時六時 平日夜一回夜七時卅分
◇大每ニュース
◇全勝キネマ社作品 時代活劇 疾風ごくろ劍士 監督 山田兼則 主演 天津龍太郞 美島麗子
◇東寶映畫社超特作全發聲版 銃後の熱誠篇 愛國六人娘 監督 松井稔氏 主演 霧立のぼる、能勢妙子、神田千鶴子、椿澄枝、山根壽子、佐佐木信子
◇メトロ-パ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戀愛交叉點 監督 레오죠-아농氏 主演 다니엘다류、알베르프레잔
京城新堂町 電(本)五六七七番 新富座

少年
五月號를보셧슴니까? 絶版되기전에 속히註文하십시요 단十錢

五月三日부터特別大公開! 英國고-몬社超特作日本版! 巨匠미로또로스마-ㄱ氏監督 大自然と戰ふ民族 리챠-드아-렌氏主演 J호아나도에드세-리嬢助演
POL超特作全發聲 原作菊池寬氏 監督萩原耐氏 人生競馬 岡讓二 丸山定夫 江戶川蘭子 大川平八郞 共演
全勝키네마社超特作全發聲 キングコング後篇 松本榮三郞主演 美島麗子 嵐山龍之介助演
東日大每特輯 支那事變戰線ニュース
市內貫鐵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円

映畵팬의手帖

「마크라멘」의 "구두"예술은

白日夢의少年時節

安碩柱

시(詩)와소설(小說)을쓰시며 일직이는 무대에직접나서기도해 고시나리오작가(作家)로 화가(畵家)로 더욱유명하시며 최근(最近)은 영화제작(映畵製作)에 분마하시는석영안석주(夕影安碩柱)씨를 기신양행영화제작소(紀新洋行映畵製作所)로 왕방(往訪)했다 언제나정열적(情熱的)이요 청춘(靑春)의혈조(血潮)를띄신 씨의 두터운혼이 더욱정답게 기자를 마저주신다 응접실에서 마침 심청전(沈淸傳)에주연했든 김소영(金素英)양과처음 인사하고나서 기자는 석영(夕影)에게 뜻밧게문답(問答)을 시작했다

○……○

記「오늘은 어데까지 보아오시든 영화에대해서 이처지지안는 말슴을 들려주서야겟슴니다」

安「미려 이야기라도해주시면은 비린도 해슴니데 갑작이 무르시면 생각이 잘나지안을것가태요」하시면서 우스신다

記「생각나는대로 말슴해주십시요 어려서 보신영화로 기억되시는건?……」

安「어려서 보신중에는『유니버ー살』회사에선가 맨든『볼듀버ー드』단편영화가재미잇섯고 탐인영화(二卷映畵)도잇고 탐정(探偵的)인것도 잇엇는데 퍽재미나더군요 어던지 자연주의(自然主義)적 사실미(寫實味)도잇고……」

記「학생시대(學生時代)에 보신것중 감격되신것 몇개말슴해주십시요」

安「十七八세적인가 단성사(團成社)에서『암흑의나라』라는영화를 상연했는데 매조트두군요『마치스테ー·라미』가 가수연했는데 세계는 불란서구요 세계대전(世界大戰)을배경으로했든군 대장쟁이가 차출에 참가했다가 도라와보니 안해는자기친우를따라가고 빈집에 도라온남편(대장쟁이)의 기막히는심정과 절망(絶望)이 말할수업시 사람의가슴을 찔르든군요 그리구 또하나 불란서천연색영화(佛蘭西天然色映畵)로『슈ー즈』(구두)라는작품인데『머리·마크라그렌』이수연한 영화입니다 거지처녀가 가히 영화를 봐오는중 이영화에서 처음보앗슴니다 직업부인(職業婦人)이 구두가다해젓는데 비오는날 이 헌구두를 신고다니는 모양 구두를사기위해서 또아니남성과 사괴게되는이야기인데 정말 눈물이막쏟다저나와요」

記「하시고는 좀어색한듯김소영양을 도라다보신다 기자도웃고 김양도웃엇으나 마음엔 어던지몰내슬픔이 기여드는듯했다」

○……○

記「영화보시는중 무슨재미나는 이야기나 로맨쓰가 업스십니까」

安「아마 소학교졸업전후인가봐요 무슨영화던지『타이튼』은 어저버렷습니다마는 조각가(彫刻家)와 그의안해인 종훈조와하는미인(美人)과 화가(畵家)와 세사람이 나오는데 조각가(彫刻家)는『롱·챠니』가 햇습니다 그런 화가의 모델이된 조각가의 안해와 고만연애가 성립되고말엇서요 그런데 그때 그화가가 어떠케 어린마음에도 조와라지 나두 크면 한번화가(畵家)가 되여 보겟다는 동경(憧憬)을 가지게되엿서요」

이래서 화가안석주(畵家安碩柱)가 탄생하게 되엿다 이건 처음듯는 놀라운사실임에 틀림업다

安「그때부터 어려워서는데 모지 [illegible] 어안저 [illegible] 하고나면 감개무량(感慨無量)하드군요」이감개무량이란말을 더욱힘잇게 두번거듭하신다

○……○

記「조와하시는 배우일홈을!」

安「예전엔『메리·픽포ー드』와『리리안·킷슈』『도로시·킷슈』자매(姉妹)를조와햇슴니다 남자로선 바렌치노구요……요새는『샤알·보아에』『아리ー·보ー르』『쿠ー퍼』구요 여배우로는『폴라·네그리』『리리안·하붸』『벨그너ー』『시몬느시몽』과『마·섹러ー』와『진저ー·로쟈ー스』지요」

記「조선배우로선 누구를조와하서요?」

安「역(故羅雲奎)의 어금룡(李錦龍)과서월영(徐月影) 심영(沈影)과 여배우로는 문예봉(文藝峰)씨와 여기안즈신 김소영(金素英)씨입니다 작품으로선 이경손(李慶孫)씨게조와지요 人生을그리구문화적향기도잇고」

記「언제나 보고시픈영화는……」

安「귀향(歸鄕)과『미완성 교향악』과『처녀호』(處女湖)입니다 이런작품을보면 청춘(靑春)에 회상(回想)돼서 다시 옛날이그리워저요」

(사진은 安碩柱氏)

(上右)"루돌프·바렌티노" (上左)"노ー마·쉐ー러" (下右)"리리안·킷슈" (下左)"도로시·킷슈"(女)

演藝娛樂

女流監督誕生

"新婦의紅衣裳"을製作

萬丈의氣焰을吐하엿다

세계영화계를 통하야 여류감독(女流監督)은 이때까지는「제복의처녀」를 제작한「레온틘자ー간」여사뿐이엿는데 이번미국「메트로골드윈」사에 새로운여자감독한분이생겨나 만장의기염을 토하고잇다 그의일흠은「도로시·아ー즈너」라고하는데 여사가영화에 관계하게된경력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

여사는「칼리포ー니아」북의「오ー크란드」에 태여나 어려서부터 그아버지되시는분이 가경영하는 카페에서 여러영화인과 접촉할기회를 갓게되엿다「촬리·촤플린」과가튼 당시의 유명한이들의감화를 바더왓섯다 그러나 여사가 영화에직접나오게된 동기는 세계대전때 간호부로 출정하엿다가 귀국한후 부탁한결과 각본부(脚本部)의타이피스트로 채용이 되엿다 그후여사는「빠렌티노」의「血과砂」를 편즙하야 새로운수법을보여주어서「젬스·크루ー즈」감독에게 인정된바되야 그이후 각색가를거처 감독으로전향하엿다

최근 제작한작품으로는「로자린드·럿셀」이 주연한「크레ー그의안해」가 잇스며 이번에는 새로히「떼렌즈·모르나ー르」의 희곡(戲曲)을 각색한 新婦는紅衣裳을 감독하엿다 이작품에는「죤·크로포ー드」와「프란쇼ー트·톤」과「로버ー트·영」이 주연하게되야 지금부터 개봉될날이 기대되고잇는 문제의작품이다

모스크바藝術座 十月로四十週年

오는시월은 모스크바예술좌(藝術座)가 창립된지 사십년을 마지하는달이다 얼마전 삼십오주년 기렴으로는「고ー리키」의「지아층(地下層)」을 상연하엿는데 이사십주년기렴사업으로는 여러가지계획을 세우고잇는중이다

첫재 기렴전람회를 개최하고 다음 출판물로는「記錄과報」에의한「예술좌」의 찬란하고도 장려(壯麗)한 호화판을 발간하기로되여잇다

그리고 기렴공행으로는「고ー리키」의 최후의대작품「도스치가ー에프와 여러사람들」과「그리보ー에도프」의「智慧의悲哀」로 결정되엿다 또이「예술좌」를창설한「스타니슬랍스키ー」는「엔게드랍프」와 협력하야「몰리에ー르」를 새로운해석으로써 역시 기렴공연의「레퍼ー토리」로 결정햇다

이「예술좌」는 五月二十六日부터「레닌·그라ー드」에출장흥행을가기로 되엿는데「레퍼ー토리」는 八十八조목이요 三月말까지에 입장권이십만매가 다팔리고잇는형편이다

世界第一! 聖林名俳優中

「헐리우드」의유명한 배우들중에서 세계에자랑해도조흘 제일가는 장점을들면 다음과갓다

女優

죤·크로포ー드(흉내내기)
그레타·가르보(月給)
도로시·라무어(長髮)
쏠리·템플(興行收入)
케이·프란시쓰(衣裳)
메리·픽포ー드(女富豪)
아니타·루이스(美人)

男優

로버ー트·뗄러(편지밧기로)
아돌프·망쥬(몸치레)
웰리·쿠ー퍼(映畵俳優의키로)
죠ー이·브라운(입크기로)
허롤드·로이드(映畵俳優中最大의邸宅과富者로)

『巴里에서 만난사람』

『콜로데트·콜베ー르』主演映畵다 그女子는 뉴ー욕의 데파ー트의 衣裳 데사이나ー로 五年동안 애써모흔돈으로 巴里로갓다 巴里에서 그女子는樂天的美男인小說家와苦生만하는 한中年劇作家를만낫다 이세사람사이에 愛情이매저저 瑞西로간다 그러나 드디어 그女子는이劇作家와結婚하게되엿다는 콜베ー르의輕妙한喜劇이다『멜빈·다그라쓰』와『로버ー트·영』助演(五月二日부터『헐빈·쇼ー』와함께 黃金座上映)

四日 (水曜)

◇正午 (東)時報 레코ー드音樂
◇午後一時一五分 家庭時間『主婦와一家의和合』 許永淳
◇同六時 橫笛獨奏 一、세레나ー데 토셀리作曲 二、트라우메라이 슈ー만作曲 三、세레나ー데 슈ー베르트作曲 四、舍베ー그의노래 그리ー그作曲 五、세레나ー데 구노ー作曲 피아노伴奏 鄭二禮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佛國民謠이야기』 朝鮮日報 李軒求
◇同七時三〇分 講演『第十二回兒童愛護週間實施에當하야』 總督府事務官 崔夏永
◇同八時(東) 獨唱 一、小夜曲 슈ー베르트作曲 二、봄날의信仰 同 三、杜鵑새 레이놀스作曲 四、노래의날개를타고 멘델스존作曲 五、安息의날 슈ー베르트作曲 六、맨저·먼산타루치아 나폴리民謠 權泰浩 피아노伴奏 黃愛多
◇同八時三〇分 八道女流名唱競演大會—京城府民館으로부터中繼— 一、…(元山)金麗香 어랑打鈴 二、…(鳳山)嚴明花 가、감내기 나、山念佛 三、…(新義州)金碧桃 新義州山打鈴 四、…(東萊)裵雲香 春香歌
◇同九時 野談『臥薪嘗膽』 金瀅雲
◇同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二) 宋今璇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
◇正午 (東)狂言
◇午後六時 (東)合唱
◇同六時二五分 (城)講演
◇同七時三〇分 (東)唱歌
◇同七時四〇分 (城)講演
◇同八時 (東)浪花節
◇同八時三〇分 (城)小唄
◇同八時四五分 (城)箏曲
◇同八時五五分 (東)物語

五日 (木曜)

◇正午 (東) 時報 唱劇調(레코ー드)
◇午後一時一五分 趣味講演『端午이야기』 寶成中學 黃義敦
◇同六時 童謠組曲『端午날』 秦貞姬 金順姬 桂恩蓮 編曲과指揮 洪蘭坡 DK管絃團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同七時三〇分 講演『兒童愛護의精神』 盧基男 朝陽幼稚園長 李康嬿
◇同八時 (東)吹奏樂 陸軍戶山學校軍樂隊 指揮 山口常光
◇同八時三〇分 라디오小說 韓銀珍
◇同九時 歌詞 一、[illegible] 二、竹枝詞 [illegible]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十一)
◇正午 (東)謠曲
◇午後六時 (東)童話劇
◇同七時三〇分 (東)唱歌
◇同七時四〇分 (東)講演
◇同八時 (東)吹奏樂
◇同八時三〇分 (大)音曲
◇同八時五〇分 (東)빼라에티

六日 (金曜)

◇正午(東) 時報 레코ー드音樂
◇午後一時一五分 家庭時間『玩具와敎育』 梨專 徐恩淑
◇同一時四〇分 春季競馬實況(平壤)—平南競馬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童話 李定鎬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獨逸民謠이야기』 文學士 曹希淳
◇同七時三〇分 講演『兒童의情操敎育에對하야』 京城女師 曹在浩
◇同八時(東) 管絃樂 日本放送管絃樂團 指揮 坂西輝信
◇同八時三五分 漫談『正直한사람들』 金元浩
◇同九時 滿洲野談(一)『日貨五十金』 申白老
◇同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三)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
◇正午 (大)箏曲
◇午後六時 (東)라디오스켓치
◇同六時二五分 (城)講演
◇同七時三〇分 (東)歌謠
◇同七時四〇分 ( )講演
◇同八時 (東)管絃樂
◇同八時三五分 (東)落語
◇同九時 (東)時事解說

運動競技

松都가中央을 培材는電機를一蹴

普專主催의中等蹴球第一日

普專主催의 第十一回全朝鮮中等學校蹴球大會第一日은 豫定과가티 三日午後二時부터 安岩町普專球場에서 前年度優勝校培材를爲始하야 開城松都中學 電機學校 中央中學 中東學校 普成中學等의 六個校選手의 入場式이잇서 大會長金性洙氏로부터 開會辭와 培材의 優勝旗返還이잇슨後 參加選手一同을 代表하야 松都主將金根淑君의 宣誓文朗讀이잇슨다음 中央對松都戰으로 大會의 幕이 열린바 다음 戰況으로 松都軍이 中央을 이것스며 第二次戰의 徽新對中東戰은 徽新軍의 棄權으로 中東不戰一勝하야 第二回戰에 드러가 松都軍과 對戰케되엿고 培材對電機學校戰은 三對零으로 培材軍이 得勝하엿다。 이리하야 今四日 午後四時부터 行할 準決勝戰에는 松都對中東戰과 培材對普成戰이열릴터이다

(寫眞은 同大會入場式)

松都1 中央0

【前0…0 後1…0】

【第一次戰】 松都對中央戰은 同午後三時半부터 朴孝濟(主審) 玄孝燮、宋基命(線審)三氏審判下에 中央先蹴으로 開始된바 結局一對零으로 松都軍辛勝하야 第二回戰에 드러가서 中東軍과 對戰케되엿다

【松都】

李庚洙	溫東協	李炳雨	宋明鎬	黃源河	宋奎五	李錫鎬	文周京	李成煥	許潔	吳秉天
GK	RF	LF	RH	CH	LH	RW	RI	CF	LI	LW
劉宗烈	金炯銑	吳命興	韓大協	嚴冏愍	金秀元	柳宗德	金東濬	金萬奎	金應燮	金根淑

【中央】

前	後	計		前	後	計
10	7	17	門蹴	4	4	8
2	3	5	隅蹴	0	0	0
1	1	2	自由	2	3	5
0	0	0	懲罰	0	0	0

培材3 電機0

【前0…0 後3…0】

【第二次戰】 培材對電機戰은 同午後五時一分부터 裵宗鎬(主審) 車淳鍾、黃義老(線審)三氏審判아래 培材킥어프로 開戰된바 結局三對零으로 培材軍이 得勝하야

【培材】

白弘璐	閔內弼	朴大種	劉永仁	黃京培	朴益煥	方在明	黃琮順	金在鉉	元容瑞	李甲鎬
GK	RF	LF	RH	CH	LH	RW	RI	CF	LI	LW
金義根	劉萬漢	鄭然喆	崔承鎬	金載煥	金光濶	全炳	朴承夏	孫河鍾	崔信奎	朴聲星

【電機】

前	後	計		前	後	計
9	9	18	門蹴	1	1	2
0	0	0	隅蹴	3	10	13
7	8	15	自由	3	5	8
0	0	0	懲罰	0	0	0

朝鮮體協主管競技日程表⑤

◇卓球部 (朝鮮卓球協會)

▲五月中
◇全朝鮮敎員卓球大會
▲六月中
◇全朝鮮男子中等學校對抗卓球大會
◇全京城女子中等學校對抗卓球大會
▲七月中
◇全日本都市對抗卓球大會
◇全朝鮮卓球選手權大會各區豫選
▲八月中
◇全朝鮮男子選手權大會
◇全朝鮮女子選手權大會
◇全朝鮮男子國際式卓球選手權
◇全朝鮮女子國際式卓球選手權
◇全日本女子選拔軍招聘卓球大會
▲九月中
◇全朝鮮實業選手權(團體、個人)
▲十月中
◇全朝鮮高專리ー그卓球大會
▲十一月中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
◇朝滿對抗卓球大會選手派遣
▲一月中(昭和十四年度)
◇東鄕優勝旗爭奪全日本學校對抗卓球大會選手派遣

◇漕艇部 (日本漕艇協會朝鮮支部)

▲五月中
◇京城帝國大學漕艇大會
◇鐵道局漕艇會
▲六月中
◇春季固定席艇及滑席艇選手權
◇京城醫專漕艇大會
◇遞信局漕艇大會
◇京城電氣會社漕艇大會
▲九月中
◇朝鮮神宮奉贊體育漕艇大會

◇氷上部 (朝鮮氷上競技聯盟)

▲一月中(昭和十四年度)
◇朝鮮神宮奉贊體育氷上大會
◇京城氷上하키ー리ー그戰
◇中等學校氷上하키ー리ー그戰
◇女子高普氷上大會
◇朝鮮、滿洲對抗氷上競技大會

第十一回全朝鮮力道大會

日時 五月六、七兩日每夜八時
場所 鍾路靑年會體育館
申請期日＝五月五日午後四時까지 參加金五十錢을添付하야提出할것
計量도同日에行함
主催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 後援 朝鮮重量擧競技聯盟 朝鮮日報社運動部

長篇小說 濁流 【187】

蔡萬植作 鄭玄雄畵

內善薩·外夜叉(1)

조금 드티겨 여덟시나 되어서다。

초봉이는 송희가 잠 든 새를 타서 잠간 저자에 다녀오려고, 여러날째 손도 안대 머리를 빗는다 나드리옷을 갈어입는다 하고잇다。

윗목 책상 아프로 안저 수형 쪼각을 뒤적어리든 형보가 아까부터 힐끔힐끔 곁눈질이잣더니 마침내

「어디 좀이 이대지 바뿌신구?」

하고 참견을 하잔다。 제가 업는 틈에 나다니는것은 못 막지만 눈으로 보면 의레껀 말성을 하려고 들고 더욱이 밤출입이라면 생 비상으로 실여한다。

「어떤데라껀 밤 어실을 자주 마저서는 못쓰는 법인데!… 끙!」

형보는 초봉이가 대꾸도 안해주니까 영낙업시 그놈 뱅뱅아지를 처들어 비위를 긁는다。

초봉이는 뒤 저림이 잇서 처음은 속이 뜨끔햇스나 새치임 한채, 좃시 거듭떠 보지도 안코, 마악 나갈 채비로 송희를 한번 더 차주고 다독거려 주고 하고나서 돌아선다。

형보는 뽀로로 알른 아프로 가로막어 안즈면서 고개를 발딱 재치고 올려다본다。

「어디 가? 어디?」

「살게 잇서서 나가는데 어쨋다구 안될이야?」

「인 제…, 내 사다 주께…」

형보는 제가 되려 능으러저 비죽 웃으면서 손바닥을 궁둥으로 내민다。

「일 업서!」

「그리지 말구…」

「이게 왜 이모양이야…안비킬테냐?」

「어멍을 시키던지…」

「안 비켜?」

초봉이는 동강을 내질르려고 발길을 들먹거리면서 아랫입술을 문다。

「제ー일!」

형보는 못 이기는체 두덤거리면서 비켜 안는다。그는 지지 안을 어거지와 자신이 업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초봉이를 위하여 제 불편이나 제 섭미쪽이면 지칫 저주다 되두는 참어가며 억제해가며 마주 국성을 부리지 말어서 그러케나마 초봉이를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시픈 정성―진실로 거짓 아닌 정성이던것이다。그것이 물론『뱀』의 정성이긴 하지만 업기야 하지만―

「나는 몰으네! 어린년 깨서 울어두?」

「어린애만 울려다 봐라! 배지를 갈러 놀테니…」

초봉이는 송희를 또한번 흘겨 다 보고, 치마자락을 휩쓸면서 마루로 나간다。

「제ー밀…장엽보 배지는 터저두 찻는다! 아무런 뚝어싱건 안에 다녀와야만 하네?……」

「영영 안 두룸업!」

「훙! 답보룸은 어떠커구?」

형보는 입을 삐쭉하면서 아랫목의 송희를 만족히 건너다 본다。

―옛날에 한사람이잇섯다。게집이 정먹는 자식을 버리고 갑부와 배마저 도망을 갓다 어린것은 에미를찾고 보채다가 꼬칫꼬칫 말러 죽엇다 사내는 어린것의 시체를 ×를 갈러, 소곰에 제려서 자반을 만들엇다。그놈을 크막한 자물쇠 한개와 얼러, 보따리에 싸서 질머지고 게집을 차저 나섯다。열두햇만에 드디어 만낫다。사내는 게집의 젓통을 구멍을 뚤코 자식의 시체자반을 자물쇠로 딸깍 채워주면서, 엣다 인제는 첫 실컷 먹어라, 하고 돌아섯다―。

형보는 고담을 한다면서, 이 이야기를 그새 몃번이고 초봉이더러 햇섯다。그런 족족 초봉이는 얼굴이 새파라케 죽고 드다못해 귀를 틀어 막군햇다。

그럴라치면 형보는 못 본체 시침을 똑고 안젓다가 더 큰 소리로

「자식을 업구 도망가지?……」

하고는 그 끝을 제가 냉큼 바더 대답이다。

「그랫거덜랑 압다 자식을 산채루……에미 젓통에다가 자물쇠루 채워주지? 흥!」

초봉이는 이것이 노상허 엄포만이 아니요 형보가 그짓을 족히 할놈으로 알고잇다。

그는 송희를 내버리고 도망할 생각이야 애당초에 먹지를 안치만 허니 데리고 나마 도망 함직한것도 그때문에 뒤를 내어 생심을 못하던것이다。

형보는 초봉이의 그러한 속을 잘 알고잇고 그러니까 그가 도망 갈 염려는 안는다。

형보는 일반 사내들이 제게 집의 나드리―그중에도 밤출입을―더퍼노코 기하는 그런 공통된『본능』이외에 또한가지의 독특한 기호를 이『방의수캐』는 가지고 잇스니 전중을 메테서는 반듯이 초봉이를 적히고 안저서야만 마음이 푹지고 조코하지 그러털 못하면은 공연히 짜징이 나고 짜징이 심하면 팡스기가 일고 이런다。

그래 시방도 일껀 도랑잇시 내보내 주기는 하고서도 막상 초봉이가 눈에 안보어고 보니까는 아니나 다르까 술그머니 심청이 부프러 오르기 시작한다。더구나 영영 안 드린울감하고 쏘아 부치던 소리가 예여 볼쾌스런 암빛을 주어, 단단히 심청이 울리 가고잇다。

【訂正】 一八一回가 겹처낫기에 一八六回分이 一八七回로 訂正記載됩니다

總額二十五萬圓·新春大景品附大特賣!

百補丸한제사면

발재봉틀、純金時計줄、황소、삼칭자개장 백동칠첩반상긔、자전차등을타게된다

勿失好期! 只今이百補丸服用의最好期

●大補元氣 補血强壯劑로京鄕各界 貴族名士를爲始하야 滿天下服藥家諸位의 絕大한 賞讚과 愛用을밧고잇는 百補丸은 事實! 朝鮮藥業界有史以來 最高賣上의 超記錄을突破하고잇슬뿐아니라 百補丸이 天下無敵의 大强壯劑로世界各國에까지 輸出되는것도 오직 그處方이神秘하야 누구에게든지 그効力이卓越하고 뚜렷하게나는까닭입니다

過色 過飮 過勞로因한 早老와虛弱엔 百補丸以上이 다시업습니다

男女老少를勿論하고

◇元氣가 不足한분 陽氣가衰弱하는분 ◇胃腸이弱하고 口味와 食慾이업고 飮食消化가잘안되는분 ◇神經이衰弱하고 記憶力이減退되는분과 肺가弱하고 貧血症이잇는분 ◇手足과 下초가冷하고 腰脚痛이잇는분 ◇過飮過色人、咳嗽가잇는분、活氣가업고여위고早老하는분은 即時 百補丸을쓰시요 全身五臟六腑를 다完補합니다

●只今百補丸을服用하면 藥効도 잘날뿐아니라 二重으로 大景品을타게됩니다 더욱이 空籤은一口도無하므로 大景品은누구나 다타게되며 等外賞까지라도 一、二等賞과 對等의價値잇는 珍貴品을 進呈하는 公平한特別式 景品特賣입니다 이런機會에 効力조흔 百補丸을쓰시요

봄철에 百補丸을服用하면 効力이倍勝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 壯陽强精强筋强骨 借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百補丸 一劑十圓

勿驚! 朝鮮初有의大景品

景品만總額八千九百八十圓

●누구나타는大景品種目

特等	一人	足踏裁縫機(발재봉틀)一臺
一等	二人	純金時計줄(男子用 和信製品)一組式
二等	五人	黃牛一頭、三층자개장、十八金腕卷時計 高級大型洋服欌、大型鋼鐵重金庫中一品
三等	二十人	自轉車一臺、純白銅七瓶飯床器一式 電氣時計(大型掛壁用)ラヂオ(四球)中一品
四等	一百五十人	卓上時計、綠付眼鏡、毛布(요)、家庭用私設燈一式中一品
五等	三百人	洋傘、世界一週萬年筆中一品
等外	全部	栗谷先生、金玉均先生、靑田先生等의眞筆屛風書畵一組式

特等으로부터 等外까지全部當選、空籤은一口도無함 等外도 全部珍貴賞品

特賣規定 ▲百補丸一劑注文하시면景品券二枚式 三劑共同注文하시면謝禮品一劑外에無料添呈하는 景品券六枚를進呈합니다 (定價五圓마다 景品券一枚式의比例)

特賣期間 自三月一日 至五月末日

當選發表 七月五日後 本紙上에發表함

生男生女 天下待望의 世界的 婦人靈藥 一劑 七圓

부인자궁병 냉병 경도부조 대하증에 婦人百補丸

京城府堅志町五九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六二三番·三三〇番·振替五番